Weekly 공감
No.374 | korea.kr/gonggam
2016. 10. 10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안보 엄중, 국민 하나 돼야"

기획특집 창조경제 실현의 장, 창조경제타운 3년

2016 가을여행주간 '대한민국 숨겨진 가을 속으로'

세계 세 번째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

중국인 관광객 밀물… '코리아 세일 페스타' 효과

스캔하면 공감 블로그를 만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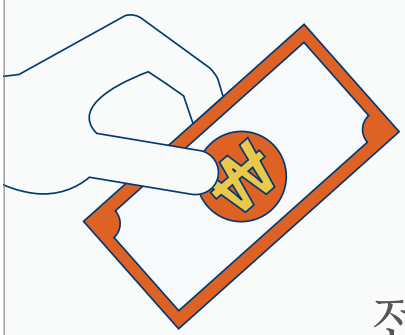
청렴韓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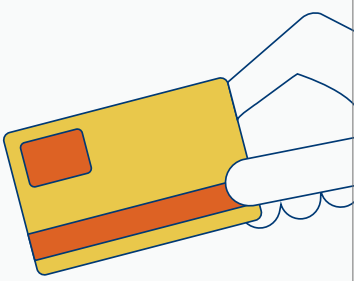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

여러분의 참여로 이제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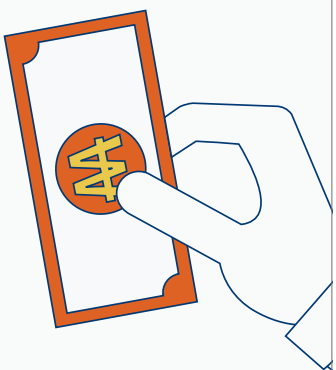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합니다
청탁금지법을 통해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고, 공정하게 경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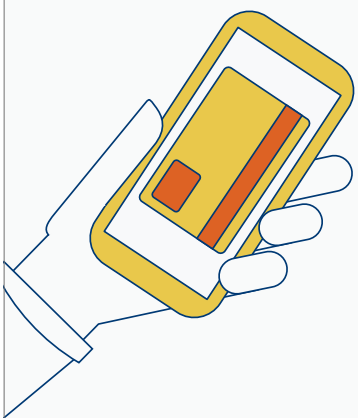
청탁금지법, 2016년 9월 28일 시행





접대문화 NO, 각자 내기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투명한 사회에 첫발 디딘 우리 쌍둥이

강원경
주부

● 지난 10월 4일 만삭의 몸으로 쌍둥이를 출산하기 위해 A종합병원에 입원했다.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을 했기에 일주일 전에 입원 예약을 해야만 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예약이 많아 원하는 병실을 배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인큐베이터 사정에 따라 출산 시기를 늦추게 될지도 모른다는 설명을 들었다.

순간 지인을 통해 출산일에 맞춰 출산할 수 있도록 병원 관계자에게 부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수술 날짜, 입원실을 정해달라는 부탁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마침내 다가온 출산일,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아침 일찍부터 병원 전화를 기다렸지만 낮 12시가 넘어설 때까지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연락이 늦는다는 것은 나보다 더 위급한 환자가 많다는 것이지, 청탁에 의해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하는 청탁이나 편법을 쓰지 않고 내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오후 2시가 넘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출산에 필요한 것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인큐베이터도 모두 준비가 됐고, 원하는 병실에 무사히 입원을 했다.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전환점이다. 모든 국민이 원칙에 따라 자신이 맡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왔다면, 청탁이나 부패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만 좋은 대접을 받았으면, 나만 더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 지연, 학연, 혈연 등을 동원해 청탁을 하고 접대를 했던 것이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는 지속성장을 이룰 수 없다. 공정한 경쟁과 올바른 노력이 아닌 편법으로 굳어진 사회는 외형만 그럴듯한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내면까지 든든하고 가치 있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굳어져왔던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이를 위한 위대한 시작이다.

"마침내 다가온 출산일,
아침 일찍부터 병원 전화를 기다렸지만
낮 12시가 넘어설 때까지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연락이 늦는다는 것은
나보다 더 위급한 환자가 많다는 것이지,
청탁에 의해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법 시행 초기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떠들썩하다. 일명 '란파라치'에 의한 신고가 한창이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저마다 몸을 사리는 통에 현재 대한민국은 '보류사회'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성장통이 아닐까 싶다. 지금 당장 아프고 죽겠다고 해서 '봐주게'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부정과 부패라는 잡초가 무성하다 보니 이를 헤치고 가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힘이 들어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병원 입원 다음 날 무사히 쌍둥이를 출산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들으니 엄마가 되었다는 감격과 함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더불어 사소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원칙을 지키며 태어나게 했다는 점이 뿌듯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세상은 부정과 편법에 멍들거나 상처받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다. 스스로의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G

Weekly 공감

2016. 10. 10
No.374 | 통권 475
korea.kr/gonggam

CONTENTS

01 이 주의 공감

04 독자마당

06 공감 사진관

이슈정책

08 박근혜 대통령, 청년 일자리 확대·재외동포 격려 등 민생 행보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재외동포 협력은 우리 경제에 큰 힘"

10 사드 배치 부지 성주 롯데골프장 확정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안보 환경 엄중,
대한민국 지키는 길에 하나 되어주길"

12 | 기고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는 시대착오다

기획특집 | 창조경제 실현의 장, 창조경제타운

13 **온라인 아이디어, 사업으로 열매 맺다**

14 창조경제타운 3년
3만7000여 건 아이디어 제안
267억 원 매출, 178억 원 투자 유치 성과

16 인터뷰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세상 바꿀 아이디어, 사업화 돕습니다"

18 세계 최초 마이크 내장 이어폰 개발 | ㈜해보라 신두식 대표
"깨끗한 말소리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20 낙상 방지 휠체어 개발 | ㈜YB소프트 유영배 대표
"브레이크 달린 휠체어라면… 안전 잡았죠"

22 태아 심장박동 기록기 개발 | ㈜나만의길 이창근 대표
"'태아에서 무덤까지' 심장박동 측정해볼까요"

표지 이야기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 안보의 최후의 보루다. 국군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맞서 물샐틈없는 철저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뉴시스)

OPEN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발행일 2016. 10. 10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조윤선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044-203-3014)
제작협력 동아일보사 **인쇄제본** 삼화인쇄
구독문의 02-2625-3294, shgwak@korea.kr
구독 주소변경 신청 수신자부담 전화 080-851-0183

18

32

36

24 의류 구김 방지장치 개발 | 캐럿 양준식 대표
"셔츠 다림질 고민… 진동으로 해결했죠"

26 사물인터넷 기반 로봇 놀이학습기 개발 | 프레도 김관석 대표
"스마트블록 갖고 놀며 한글 깨치기, 좋잖아요"

28 창조경제타운 우수 멘토 4인의 이야기
창업의 모든 과정에 일급도우미 있었다

정책 일반

30 **수급액 2배 목표 14년 앞당겨 20만 원**
연간 448만 어르신에게 든든한 노후 제공

32 세계 세 번째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
신약 개발 등 과학기술 새 심장이 뛴다

34 **햇빛보다 100경 배 밝은 빛 '슈퍼현미경'**
물이 산소와 수소로 나뉘는 순간까지 포착

35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공동 IR 개최
스타트업과 투자자 의미 있는 만남의 시간

36 코리아 가상현실(VR) 페스티벌 2016 성황리 개최
실제와 똑같은 가상현실
와~ 짜릿하고 실감 나네

38 소비와 투자 등 민간 활력 제고 노력
4분기 정부·공공부문 재원 10조 원 이상 더 집행

39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신속 정확하게 현장 대응력 높인다

문화, 교양, 인물 & 라이프

40 2016 가을여행주간, 10월 24일~11월 6일
구석구석 숨겨진 대한민국 매력을 만난다

42 2016 가을여행주간 전국 17개 지역과 연계
내게 딱 맞춘 프로그램 골라볼까?

44 고즈넉한 가을밤과 함께 문화재 야행(夜行)
오색 달빛 벗 삼아 역사 속을 거닐다

46 제품력·가성비·한국문화체험 반한 중국인 관광객
"코리아 세일 페스타, 팅하오!"

48 한국에서 관광, 음식, 쇼핑 만끽
'코리아 세일 페스타' 반갑지 아니한가

50 | 지상강좌 | 이금룡 코글로닷컴 대표·前 옥션 대표
"미래에 용기 있게 도전하려면 문·사·철로 나만의 철학 다지세요"

52 국립중앙과학관 '고대 그리스 과학기술 특별展'
최초의 자판기… 자동 신전의 문… 그리스 발명품 기발하네요

54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재개관
'그리운 내 고향' 벽화로 다시 만나다

55 우정사업본부·지자체 '느린 우체통'
'1년 느린 편지'를 나에게 하겠어요

56 **점심값은 내가 쏜다? 더치페이가 대세야, 대세!**

58 **나청렴 박사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60 **프로스포츠 '클린 스포츠'로 거듭나야**

61 내년부터 화장품 미세 플라스틱도 금지
149개 치약 회수… 살균제 성분 극미량

62 **생활과학 이야기**

63 **書로공감**

64 **소통과 공감**

알림 게시판

더 가까이, 더 빠르게
디지털로 만나는 〈위클리 공감〉
모바일, 태블릿, PC 등 어디서나 〈위클리 공감〉의 주요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고 공유하세요.

〈위클리 공감〉 디지털 기사, 이곳에서 만나세요!

탭진 리디북스 블로그 페이스북

해당 서비스는 iOS,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든 디바이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누리집 www.korea.kr/gonggam
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tapzin.com/app
ridibooks.com
koreablog.korea.kr
www.facebook.com/wegonggam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제3회 국립서울현충원 웹툰 공모전

공모 내용 '당신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나요?'를 주제로 한 웹툰. 마지막 컷은 나라 사랑에 관한 내용을 담아 완성
응모 자격 전국 초등학생(4~6학년),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2인 이내 팀으로 지원 가능)
접수 기간 10월 12일~11월 30일
응모 방법 8컷 이상의 JPG 형식 웹툰을 양식에 맞게 삽입해 공모전 누리집(www.snmbwebtoon.com)을 통해 제출
수상 혜택 대상 1편에 상금 250만 원 수여 등
주 최 국립서울현충원
문 의 씽굿 공모전 운영사무국(02-334-9044)

제2회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 내용 ①국방정책 아이디어(전략·전술, 국방 경영, 병영생활, 민·군 협업)
②국방 관련 창업 아이디어
응모 자격 일반 국민 및 장병, 군무원 등(5인 이하의 팀으로 지원 가능)
접수 기간 11월 23일까지
응모방법 A4용지 2~5장 분량의 아이디어 제안서를 분야별로 창조국방 누리집(creative.mnd.go.kr) 또는 창조경제타운 누리집(creativekorea.or.kr)에 제출
수상 혜택 각 분야별로 최우수상 1팀에 각 500만 원 수여 등
주 최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문 의 국방정책 발전 아이디어(02-745-5432), 국방 창업 아이디어(1644-1005)

〈위클리 공감〉 370~371호를 통해 진행된 독자 설문조사에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추첨을 통해 선정된 스무 분의 당첨자 명단입니다.
고향기(전남 여수시), 권선미(경기 용인시), 김기준(서울 송파구), 박숙희(강원 원주시), 박윤진(서울 양천구), 박차영(전북 남원시), 서정이(전남 순천시), 소은선(부산 북구), 송국화(전북 순창군), 양서윤(전북 장수군), 양이준(전남 여수시), 유지영(전남 여수시), 이길벗(광주 광산구), 이승혜(서울 구로구), 이춘성(서울 구로구), 이타봉(울산 남구), 장미향(경남 창원시), 전예빈(경기 의정부시), 정새봄(충남 논산시), 황석영(충북 충주시)

삼세판 퀴즈

01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24일~11월 6일 가을 ○○○○에는 전국 각지의 숨겨진 여행지와 지역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각종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02 침체된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양대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9월 30일로 출범 3주년을 맞았다.

03 우정사업본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 ○○○은 엽서에 내용을 적어 넣으면 1년 뒤 엽서에 적힌 주소지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372호 삼세판 퀴즈

정답
01 배우자 **02** 조기성 **03** 시간선택제

당첨자
유은경(대전 중구 서문로)
위경옥(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김도희(부산 사상구 모라로)
정창재(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이정애(제주 제주시 연삼로)

〈위클리 공감〉을 읽어보세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빈칸의 답을 '삼세판 퀴즈 374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0월 20일 오전까지 이메일(shgwak@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세종특별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우 30119)

공감 카툰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 창조경제타운!

해내는 대한민국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문화 강국 코리아

얼마 전 우연히 누리소통망(SNS)에서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다. 최근 세계적인 비보잉 대회에서 우승한 한국팀의 공연 영상이었다.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자신의 춤사위를 펼치는 비보이의 공연에서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다. 공연하는 동안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던 비보이의 표정에는 무대에 오르기까지 흘렸던 땀과 눈물, 그리고 피나는 연습 끝에 비로소 지을 수 있는 미소가 보였다. 비보이들은 꿈을 향한 열정과 노력으로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전파자로서 이제 세계적 위상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지금은 비보이를 포함해 K-팝과 같은 문화콘텐츠가 현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세계인이 열광하는 우리의 문화콘텐츠를 볼 때마다 뜨거운 감동이 밀려온다.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대중문화의 힘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렸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디자인 분야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지만, 나 또한 앞으로 디자이너로서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에 힘을 보태는 일원이 되고 싶다. 지금까지 한국 문화를 이끌어온 대한민국 국민의 땀과 열정을 이어받아 미래 세대에게 또 다른 자부심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나현** 대학생

한글이 걸어온 길 따라 시간 여행!

제570돌 한글날을 앞둔 10월 6일 경기 김포시 마송초등학교 학생들이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해 '한글이 걸어온 길' 상설전시관에 전시돼 있는 목판인쇄 과정을 영상으로 살펴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박근혜 대통령, 청년 일자리 확대·재외동포 격려 등 민생 행보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재외동포 협력은 우리 경제에 큰 힘”

ⓒ뉴시스

1

2

1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강소·벤처·스타트업 청년매칭 2016년 잡페어’ 개막식을 마친 뒤 면접컨설팅관에서 청년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고 있다. 2 박 대통령이 이놈들연구소(주) 부스를 방문해 대표로부터 손가락을 귀에 대면 소리가 들리는 제품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박샛별 | 위클리 공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월에도 청년 일자리 확대를 독려하고, 재외동포의 공로를 격려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10월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강소·벤처·스타트업 청년매칭 2016년 잡페어’ 행사장을 방문해 청년 구직자와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장을 찾아 국민 체감을 확산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아홉 번째 현장 행보다.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도 창조적인 혁신을 통해 그동안 없었던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고, 청년들도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해 새로운 일자리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창조경제 전략을 추진해나가면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연구개발(R&D) 지원, 신산업 육성을 통해 강소·벤처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창조경제의 성과로 육성된 스타트업 등 창업 기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확대하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높은 기술력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강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시야를 넓히기 위한 현장 행보다. 특히 창조경제를 통해 육성된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청년 일자리 매칭 행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강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약 350개사는 우수 청년 인재 약 12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매칭 2016 잡페어 방문
홍채인식 솔루션 등 제품 직접 시연

현장에는 청년 구직자의 현장 면접을 진행하는 벤처·스타트업 채용관, 중견·강소기업 채용관, 벤처·스타트업 제품 전시관 등이 마련됐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통령 해외 순방, K-스타트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약진을 거둔 스타트업 제품들이 큰 주목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개막식 참석 후 전시관으로 이동해 홍채인식 솔루션 등 전시된 주요 제품의 시연에 직접 참여하며 이들 제품을 개발한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성장 잠재력, 일자리 비전을 청년들에게 소개했다. 청년들은 박 대통령이 소개한 홍채인식 솔루션 개발업체 등 정부 지원으로 육성된 벤처·스타트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

ⓒ뉴시

박 대통령이 10월 5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서 기념 촬영 후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으로 취업 관련 질문을 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업들의 구직 청년 면접이 이뤄지는 채용관과 여성·청년 CEO가 이끄는 스타트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부스를 연이어 찾아 청년 채용 과정과 기업들의 고충을 경청했다.

한편 구직 청년들이 강소·벤처·중견기업에 많이 취업하고 취업해서도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구직 활동 실비를 지원하고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호응이 높았다. 정부 지원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희망재단과 협업해 신생 벤처기업들을 인재 매칭사업 운영기관에 등록하고, 박람회를 통해 구직 청년을 최종 채용한 기업에는 인재지원금을 총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 규모로 지원한다. 현장 면접에서 1차 합격한 구직 청년들에게는 정장 구입비, 교통비, 숙박비 등 60만 원 한도의 면접 실비를 지원하고, 2차 면접 이전에 전문기관을 통한 면접 컨설팅 서비스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스타트업 등 참여 기업들에 우수인재 채용과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 근속 시 1200만 원 자산 형성 지원)'를 적극 안내하고 우선 가입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720만 재외동포 위한 격려 메시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위해 협조 당부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10월 5일엔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된 '제1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도 참석해 720만 재외동포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세계한인의 날은 2007년 재외동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동포들에게 민족의 긍지를 고취하기 위해 매년 10월 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날이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해외 순방을 나갈 때마다 우리 동포들이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는다"며 "앞으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해 동포들을 위한 교류의 장을 확대해나가고, 지역별 맞춤형 동포 정책과 국민을 위한 영사 서비스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나가고 있다"며 "세계 각국의 동포들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 노력을 주변에 잘 알려주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박세익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회장, 김 브라이언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오공태 재일민단 중앙본부 단장 등 전 세계 84개국에서 방문한 400여 명의 세계한인회장들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참석한 재외동포들에게 세계 경제가 갈수록 촘촘하게 연결돼가는 상황에서 재외동포들과의 협력은 우리 경제에도 큰 힘이 된다고 전하고, 특히 우수한 역량을 갖춘 우리 청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고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글로벌 시민으로 당당히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더 나은 지역별 맞춤형 동포 정책, 국민을 위한 영사 서비스, 재외동포센터 건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

사드 배치 부지 성주 롯데골프장 확정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안보 환경 엄중, 대한민국 지키는 길에 하나 되어주길"

©뉴시

롯데골프장의 사드 배치 5대 장점
❶ 부지가 넓어 포대 배치 용이
❷ 해발고도 높아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 최소화
❸ 진입로와 전기 등 기반시설 완비돼 공사·배치기간 단축
❹ 칠곡 미군기지와 가까워 포대 운용 지원 용이
❺ 소유자 롯데그룹이 협상에 긍정적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확정된 성주 롯데골프장.

최호열 | 위클리 공감 기자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장소가 경북 성주군 달마산에 위치한 롯데골프장으로 최종 결정됐다. 국방부는 9월 30일 경상북도와 성주군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각 정당을 찾아가 "롯데골프장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한·미 국방부는 이곳을 최종적인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부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일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우리 국민과 장병들을 그대로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다"며 "사드 배치는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권적 방어조치이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조치"라고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 정권은 내부 분열을 통해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핵 도발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념과 정파의 차이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하나가 되어줄 것"을 촉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10월 4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에서 사드 배치 부지 결정과 관련해 "근거 없는 괴담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드 체계가 주민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음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된 만큼 국민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더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10월 4일 사드의 경북 성주군 롯데골프장 배치와 관련해 부지 매입 협상과 주민 설득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단 김천 주민들께는

설득을 계속해 이해를 구하고, 부지와 관련된 협상은 협상대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 "사드 배치 관련 괴담·유언비어 유포 엄단"
롯데골프장,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 비교적 자유로워

국방부는 당초 지난 7월 13일 경북 성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성산포대와 1만4000여 명이 거주하는 성주읍 사이의 거리가 1.5km에 불과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노출을 우려한 성주군민들의 반대가 심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8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성주군민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확하고 상세히 국민께 알리겠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8월 22일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부지'에 사드를 배치해줄 것을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성주군 요청에 따라 한·미 공동실무단은 8월 27일부터 성주군이 추천한 후보지 세 곳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롯데골프장 부지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미 국방부는 이곳을 최종적인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군 실무자들과 6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제3부지 평가에서 롯데골 프장이 국방부가 제시한 부지 선정 6개 기준(작전 운용성, 주민·장비·비행 안전, 기반시설 체계 운용, 경계·보안, 공사 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기간)을 충족했다. 우선, 진입로와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을 구비해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지 면적도 성산포대보다 넓어 레이더와 포대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에 비해 주변 민가가 적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혔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성주포대는 1.5km 떨어진 성주읍에 1만4000여 명이 거주하는 반면, 롯데골프장이 있는 달마산 주변엔 2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 달마산은 해발 680m로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 사드 레이더 빔은 최소 5도 이상 위쪽으로 방사돼 전자파가 지상까지 미칠 위험이 없어 인근 주민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구글어스 ©

성주 롯데골프장(최종 결정 부지)		성산포대(기존 결정 부지)
178만㎡ (골프장 96만㎡, 임야 82만㎡)	면적	약 12만㎡
680m	해발고도	383m
변경 5.5㎞ 이내 2100명 거주. 김천혁신도시(1만4000명 거주)와는 8㎞ 위치	주변 주거지	반경 1.5㎞ 이내 성주군 인구 절반인 2만 명 거주

자료 : 국방부

국방부는 사드 부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일정에 대해 "먼저 해당 민유지 소유자 측과 부지 매각 협의를 진행하고, 확정되면 그 후부터는 한·미가 부지 공여 절차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서 밟게 된다"며 "2017년 중 사드 체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성주 롯데골프장을 매입하기 위해 소유주인 롯데 측과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 소유 다른 토지와 성주 롯데골프장을 맞바꾸는 '대토' 방식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골프장 측도 "국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 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정부 방식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성주 롯데골프장에 새로운 사드 포대를 조성하지 않고 현재 본토에서 운용 중인 사드 포대 중 1개 포대를 이동 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10월 2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텍사스주의 사드 1개 포대를 한국으로 이동 배치하는 계획과 배치 시기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G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 기고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는 시대착오다

● 노조의 파업이 줄을 잇는다. 금융노조가 파업을 벌인 이후 철도노조, 지하철노조, 보건의료노조, 현대차노조 등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로서는 '신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파업을 벌이는 것이 의아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가 690만 명이고, 그중 혼자 일하는 영세사업자가 400만 명에 달한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음식점, 도소매업을 하는 까닭에 과잉 자영업이 문제된 지 오래다. 취업한 사람 중 월 150만 원가량 받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670만 명에 이른다. 실업자 100만 명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을 합치면 1460만 명이 월 150여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는 상용근로자는 1300만 명에 그친다. 그중 금융회사, 공공기관, 현대차는 평균 연봉이 7000만~90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임금의 상위 10% 수준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직장 안정성이 보장되고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린다. 이렇다 보니 공개 채용이 진행될 때면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한다. 심지어 젊은이들은 이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취업 재수, 삼수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니 요즘처럼 살기 힘든 시기에 일반 국민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성과연봉제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적게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임금제도다. 열심히 일한 만큼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

이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로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성과연봉제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적게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임금제도다. 열심히 일한 만큼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는 이들이 그동안 편안하게 높은 임금을 받아왔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이들이 기존에 유지하던 제도는 연공호봉제다. 성과와는 상관없이 해가 지나면 연봉이 올라가는 구조다. 생산성과는 상관없이 근무 연수만 지나면 연봉이 올라가 신입사원과 고참 직원 간에는 3~4배 연봉이 차이가 난다. 창의력 있는 젊은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부담이다. 고액 연봉의 관리자가 많아지는 과두형 회사들이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파업하는 현대차의 경우 평균 연봉은 미국, 일본, 독일보다 많으면서 한 사람당 자동차 생산 대수로 측정하는 생산성은 이들 국가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생산성은 낮은데 연봉은 높고 복지 혜택이 풍부한 이상한 구조. 이는 방만 경영의 결과로 나타나며 빚이 천정부지로 쌓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난해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부채는 505조 원에 달했다. 금융공기업의 부채는 290조 원에 이른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4조 원을 기록했다. 생산성을 높여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고스란히 후대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개혁을 추진해왔고, 그 일환이 성과연봉제 도입이다.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기존 연공호봉제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장기근속자 보수가 생산성과 무관하게 많아진다. 이 때문에 신규 고용 여력이 잠식돼 청년 일자리가 그만큼 감소한다. 결국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연공호봉제로 생긴 임금 지급 부담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성과연봉제를 모든 연봉과 모든 직급에 도입하자는 것도 아니다. 올해는 연봉의 20%, 내년에는 30% 범위 내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대상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2급까지에서 4급까지만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연봉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G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기획특집

창조경제 실현의 장, 창조경제타운

온라인 아이디어 사업으로 열매 맺다

"창조경제는 국민 개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접목하고,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다보스 포럼 개막연설에서(2014. 1. 22)

누리 공간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 창조경제타운이 9월 30일로 출범 3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3만7257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제안됐으며, 이 중 1700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1만1255건의 사업화 지원이 이뤄졌고, 77건 267억 원의 매출과 24건 178억 원의 투자 유치 등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창조경제 문화 확산 플랫폼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예정인 창조경제타운의 성과와 비전을 살펴보았다. G

최호열 | 위클리 공감 기자

©shutterstock

창조경제타운 3년

3만7000여 건 아이디어 제안 267억 원 매출, 178억 원 투자 유치 성과

ⓒ동아DB

2014년 11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창조경제박람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타운 상품 유통채널을 둘러보고 있다.

최호열 | 위클리 공감 기자

● '엄마가 더 편하게 요리할 수 없을까?' 평소 집에서 엄마가 요리하는 것을 도우며 이런 생각을 했던 초등학교 1학년 정호진 학생은 '창조경제타운 어린이 3D 활용 경진대회'에 안 쓰는 전동칫솔을 활용한 '계란 믹서기' 아이디어를 출품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정 군의 아이디어는 창조경제타운의 지원으로 시제품 제작은 물론 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

대학생 이강준 씨는 침대 낙상 사고를 당한 외할머니를 간호하면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창조경제타운에 제안했다. 재활치료 환자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워커(Walker)인 'Easy팡이'가 그것. 그의 아이디어는 온라인 멘토링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 등을 통해 제품으로 만들어져 현재 제품 인증 단계에 있다.

㈜해보라 신두식(48) 대표는 10년 전 우연히 사람이 말을 하면 고막으로도 그 소리가 전달된다는 걸 알게 됐다. 이 원리를 활용해 제품 개발을 구상하던 신 대표는 2013년 10월 창조경제타운에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창조경제타운의 지원 속에 올 3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말도 전달할 수 있는 유무선 이어셋 '리플버즈(이어톡)'를 개발해 출시했다. 그 과정에서 사업화연계기술 개발사업(BI 연계) 지원금 2억5000만 원 외에 중국 등에서 총 17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제품 출시 후에는 8억3000만 원의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세 가지 모두 창조경제타운이 없었다면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없었던 아이디어들이다. 창조경제타운이 9월 30일 출범 3주년을 맞았다.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은 남녀노소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를 사업화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창조경제 플랫폼이다.

지난 3년 동안 창조경제타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늘어 지난 9월 23일을 기준으로 방문자 수가 350만7689명을 넘어섰고, 회원 수가 12만174명에 달하며, 3만7452건의 아이디어 제안이 이뤄졌다. 또한 멘토링을 원하는 2만3501건의 아이디어는 전문 멘토 1888명의 온라인 멘토링을 제공받았고, 기술 권리화,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자금 투·융자 지원 연계 등 1만1892건의 사업화 지원을 받았다.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국민들의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가 창조경제타운의 전문 멘토링을 거치면서 실제 사업화로 이어져 몬스터 배터리 등 77건에서 약 267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리플버즈 등 24건에서 약 178억 원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다.

350만 명 방문, 회원 12만 명… 국민 참여 꾸준히 늘어
3주년 맞아 운영 관련 서비스 대폭 개선·강화

창조경제타운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민관 아이디어 공모전 연계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도전 기회를 제공한 것이 컸다. 또한 제안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 멘토들이 헌신적으로 '온라인 멘토링'을 해주었다. 전문 멘토들은

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의료·복지 등)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멘토는 재능 기부 형태로 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 네트워크 등을 최대한 활용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했다. 아이디어 공개를 꺼리는 사용자를 위해 비공개 멘토링, 맞춤형 1 : 1 멘토링을 하는 등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도 갖췄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10개 정부부처와 삼성, 포스코 등 민간기업의 41개 사업과 연계해 기술 개발 및 기술권리화, 시제품 제작, 자금 지원 등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본격적인 사업화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함으로써 전 주기 사업화 지원 플랫폼이 완성돼 선순환 창조경제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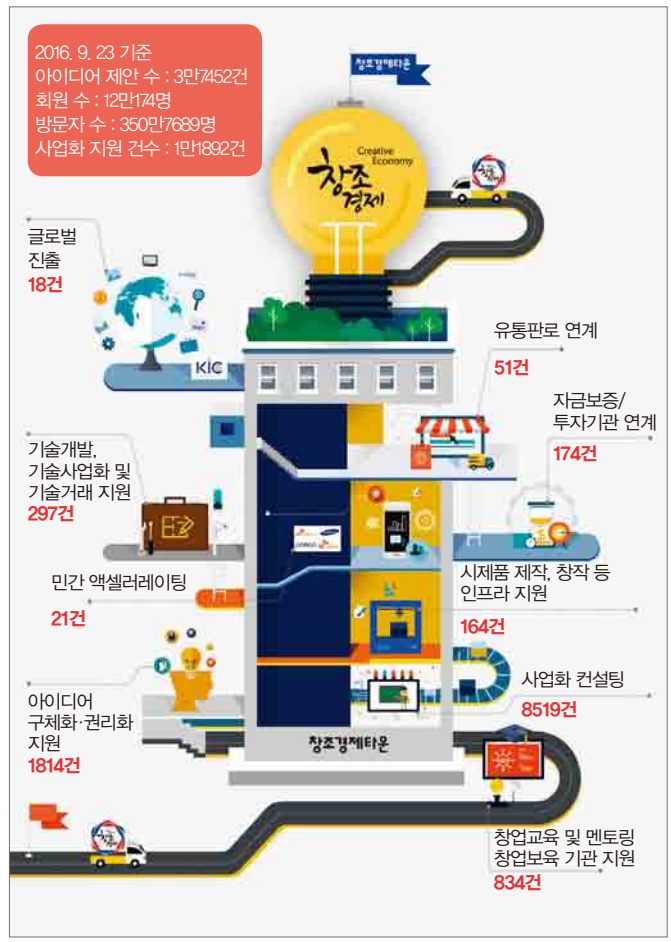
창조경제타운은 3주년을 맞아 운영 관련 서비스를 대폭 개선·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창조경제 관련 다양한 정보를 집적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온라인 버전의 플러그앤플레이(PnP)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는 등 창조경제타운을 창조경제의 대표 포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하나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과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아이디어 제안 회원, 멘토 이력 등 데이터베이스(DB)를 종합 관리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10월 중순까지 공개 멘토링 커뮤니티를 운영해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멘토링을 도입하고, 11월 중으로 멘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도 구축할 예정이다.

창조경제타운의 사업화 지원도 더 강화된다. 엔슬(투자조합), 전국경제인연합회, 윕스(특허 전문기업) 등 외부 창업 생태계 플레이어들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가 외부 소셜 서비스에서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이 밖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참여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초·중·고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급별 대항전을 개최하는 등 앞으로 창조경제 주역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창조경제타운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수레의 양 바퀴처럼 작동해 창조경제타운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혁신센터까지 이어져 상품의 생산과 판매·유통,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 사업화의 전 주기 지원체계가 갖춰졌다"고 평가하고 "국민의 창의적인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더욱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아이디어에 대해 소통하고 다양한 분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조경제타운이 창조경제 확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

창조경제타운 3년 성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뷰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세상 바꿀 아이디어, 사업화 돕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창조경제타운을 창조경제 문화 확산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호열 | 위클리 공감 기자

● 박근혜정부는 저성장, 청년실업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고, 창조경제 생태계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3년 9월 온라인 기반의 전 국민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픈하고, 2014년 9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업·중소기업 지원의 구심적 구실을 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창조경제 실현 플랫폼을 갖췄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부터 오픈 3주년을 맞은 창조경제타운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

창조경제타운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현 상황에서 창조경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의 기회를 열어나갈 수 있는 포용적 혁신의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은 온라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입니다. 창업 아이템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는 곳으로 정보통신, 교육·문화, 안전·의료·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 멘토단이 아이디어 구체화와 육성을 돕고 있습니다. 멘토링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된 아이디어는 정부 부처 및 민간과 연계해 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 유통 판로 개척 등의 사업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나요.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없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창조경제 플랫폼입니다. 창조경제타운 누리집(www.creativekorea.or.kr)에 아이디어를 올리거나, 창조경제타운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에 참여하면 전문가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다면.

"초등학교 1학년 정호진 학생의 경우, 엄마와 함께 '창조경제타운 어린이 3D 활용 경진대회'에 참가(최우수상)해 평소 생각하던 아이디어인 안 쓰는 전동 칫솔을 재활용한 계란믹서기를 시제품 제작, 선행기술 조사 지원 등을 통해 특허 출원까지 완료했습니다. 대학생 이강준 씨는 침대 낙상 사고로 편찮으신 외할머니를 간호하면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창조경제타운에 제안했는데, 현재 그 결과물인 재활 치료 환자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Walker Easy팡이'가 온라인 멘토링과 서울혁신센터의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 등을 통해 제품 인증 단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멘토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타운에 등록된 멘토들은 정부 출연 연구소, 대학 등 학계

전문가와 대기업 임직원, 중소기업 대표, 경영지도사 등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 188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의 멘토는 멘티 스스로 역량을 발전시켜 영글지 않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1 : 1 밀착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은 물론, 인큐베이팅 아이디어로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사업화 촉진을 위해 오프라인 집중 멘토링을 실시하고, 정부 예산사업도 연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아이디어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외 진출을 돕고 있는지요.

"창조경제타운은 국민이 제안한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해 온라인 멘토링과 함께 기술사업화, 사업성 진단 등을 실시하고, 이후 공공과 민간 부문의 각종 지원사업을 연계해 사업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는 우수 아이디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매칭해 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 크라우드펀딩 진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보라(리플버즈)의 경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상하이(2015년 7월), 오렌지팹 도쿄(2015년 12월), 국제가전제품박람회(CES) 라스베이거스(2016년 1월), 오렌지팹 대만(2016년 3월) 등 각종 해외 전시회에 참가했고, 인디고고와 킥스타터를 통해 총 8억3000만 원 상당의 투자를 받는 등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협력해 'K-글로벌 실리콘밸리', 'K-글로벌 파리' 등의 수출상담회에 우리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외 진출을 돕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관계는 어떤 건가요.

"창조경제타운은 온라인상에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하는 소통의 장(場)이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에서 온라인 멘토링과 교육을 통해 육성된 아이디어는 제안자의 지역과 필요한 지원 분야를 고려해 적합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매칭해줍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담 대기업, 지역 혁신기관 등과 협력해 자금 지원, 기술 이전, 판로 확보, 글로벌 진출 등 사업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협력 성공 사례가 있다면.

"자동으로 높이가 조절되는 지능형 헤드레스트(오토레스트)와 환자들의 낙상 위험을 없앤 낙상 방지 휠체어(YB소프트) 등이 있습니다. 지능형 헤드레스트는 창조경제타운에 아이디어를 제안한 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으로 시제품을 완성하고 크라우드펀딩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투자를 받아 현재 제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낙상 방지 휠체어는 창조경제타운의 모의 크라우드펀딩에서 1등을 하는 등 시장성을 인정받고, 이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 연계되어 현재 양산 중입니다."

앞으로 지향하는 창조경제타운의 위상은.

"창조경제타운을 창조경제 관련 정보가 집적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버전의 플러그앤플레이(PnP)로 기능을 확대해 창조경제의 대표 포털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 창조경제타운에서 쉽고 재미있게 아이디어에 대해 소통하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조경제타운이 창조경제 문화 확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려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은.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과 시스템을 연계해 온라인 관문을 일원화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 아이디어를 완성해나가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멘토링'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문턱을 더욱 낮추고, 가벼운 아이디어도 멘토링을 통해 발전시켜 사업화까지 '물 흐르듯'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외부 소셜 서비스에서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3D 모델링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를 활용해 단순 스케치 형태의 아이디어를 3D 형태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아이디어에 대한 가상의 크라우드펀딩을 시행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가 스타트업에 추가적인 사업화 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G

세계 최초 마이크 내장 이어폰 개발 | ㈜해보라 **신두식** 대표

"깨끗한 말소리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지훈영 기자

㈜해보라 신두식 대표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마이크 내장 이어셋 리플버즈는 세계 유수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사람이 말을 하면 목소리가 입 밖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전달된다."

15년 전 우연히 일본의 정보기술(IT) 전시회에 참석한 ㈜해보라의 신두식 대표(48)는 전시 담당자에게 이런 설명을 듣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어폰에 달린 마이크를 귓속에 넣으면 마이크에 소음이 들어가지 않고 내 목소리만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호기심과 열정이 많았던 신 대표는 곧바로 제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아 신 대표의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갈 길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15년 전 떠올린 아이디어 마침내 사업화 성공
소음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큰 효과

2010년 어느 날 신 대표는 그사이 기술이 발달해 소형 스피커와 마이크가 개발된 것을 보고 드디어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때가 찾아왔다고 판단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뛰어들었다. 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들이 나타나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스피커와 마이크가 같이 있으면 에코와 하울링이 발생합니다. 이런 잡음을 없애는 것이 무척 어려웠어요. 또한 귀로 나오는 목소리는 울림이 있기 때문에 따로 보정도 해줘야 했죠. 결국 전자회로, 재료, 음향, 기구 등 네 가지에 대해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 시행착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착오 끝에 개발된 '리플버즈'는 세계 최초로 귓속에 마이크가 내장된 이어폰이다. 겉으로 보면 마이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목소리가 귓속에서 직접 마이크에 전달되기 때문에 아무리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돼 있어도 목소리가 잡음 없이 깨끗하게 전해진다.

"지하철처럼 시끄러운 곳에서 통화해도 목소리가 깨끗하게 전달되고,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들리는 모든 소음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어요. 귓속에 마이크를 장착한 이어폰은 세계 최초이며, 소음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제철소, 조선소,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보청기, 스마트 안경, 통역 서비스, 인공지능 음성 서비스 등에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플버즈'의 생산을 확대하면서 판매처를 발굴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2013년 신 대표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알게 된 멘

토의 소개로 '창조경제타운'을 접하게 됐다. 창조경제타운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비공개 멘토링', '맞춤형 1 : 1 멘토링' 등을 포함해 기술 개발과 기술 권리화, 시제품 제작, 자금 지원 등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보육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해외 전시와 박람회 등에 참가해 기술과 제품 홍보
크라우드펀딩 통해 30억 원 넘는 투자 유치 성공

신 대표는 2013년 10월 창조경제타운에 이어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2014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용을 위한 기술 사업화 비용으로 1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같은 해 8월부터는 창조경제타운의 밀착 멘토링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고, 그해 12월에는 사업화연계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억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신 대표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박람회와 전시회 등에 진출하며 사업의 방향성도 빨리 잡을 수 있었다. 2015년 4월에는 미래부에 의해 설립된 글로벌혁신센터(KIC)가 실리콘밸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센터)를 통해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정보통신산업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참가했다. 2015년 9월에는 창조경제타운에서 제품의 사업성을 진단받고, 같은 해 12월에는 경기센터를 통해 프랑스의 글로벌 통신사업자 오렌지사가 도쿄에서 진행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오렌지팹 도쿄에 참여했다. 2016년 1월에는 경기센터를 통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부스를 열었고, 올해 3월 오렌지팹 대만 행사에서도 자사 기술과 제품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은 제품의 구현뿐 아니라 판로를 개척하는 일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타운과의 인연을 통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저희 멘토님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죠. 덕분에 사업의 방향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투자 유치에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창조경제타운의 멘토를 통해 특허권의 권리 확보 범위 등 사업 경쟁력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세계 최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와 시장성이 입증된 제품만 입성할 수 있는 선주문 플랫폼 사이트인 인디고고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총 30억 원이 넘는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후 10여 개국의 대형 유통사와 투자사의 제휴 요청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리플버즈 사업화 지원 내용

신 대표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총 9개국에서 120개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의 꿈을 키워왔다. 이를 위해 경기센터는 유튜브용 소개 동영상을 영문으로 제작·지원해 한국 주재 외신기자들에게 보내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마이크 내장 이어셋 리플버즈는 10월 말부터 선주문 물량을 출고할 예정이며, 가격은 10만 원 내외로 책정돼 있다.

"오랜 시간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 리플버즈가 드디어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창조경제타운으로 인연을 맺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제품을 구현하고 창업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리플버즈가 세계 이어셋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G

낙상 방지 휠체어 개발 | ㈜YB소프트 **유영배** 대표

"브레이크 달린 휠체어라면… 안전 잡았죠"

©YB소프트

1 특허 받은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낙상을 차단한 YB소프트의 낙상 방지 휠체어. 2 2013년 1인 기업 YB소프트를 창업한 유영배 대표.

김가영 | 위클리 공감 기자

● 지난해 여름 처음 창조경제타운의 문을 두드린 ㈜YB소프트는 올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다각적인 지원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허받은 아이디어만 수십 개에 달하지만 어느 것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지, 어떻게 사업화하고 국내외 판로를 개척해야 할지 정보와 인프라가 없던 이 회사 유영배(44) 대표는 창조경제타운의 멘토링 시스템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입주공간 지원을 바탕으로 현재 낙상 방지 휠체어 양산과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YB소프트는 사회에 이로움을 주자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2013년 6월 설립된 기업입니다. 설립 당시 획기적인 아이템은 있었으나 이를 현실화할 수단이 없어 창조경제타운을 방문하게 됐죠. 이곳의 멘토링 시스템을 수행하며 여러 가지 사업적 기반을 쌓았고, 지난 4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하면서 사업적 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아내의 경험 듣고 휠체어 안전에 관심 갖게 돼
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해 지원금과 17억 원 투자 유치 성공

유 대표는 오랜 기간 낙상 방지 휠체어라는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연구해왔다. 간호사인 아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휠체어 때문에 겪는 사고가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휠체어의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그는 연구를 통해 휠체어의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고, 이를 개선한 구조로 특허를 출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탄생한 낙상 방지 휠체어는 안전벨트나 안전바를 설치해 환자가 벨트나 바를 완전히 잠그기 전까지 잠금 상태로 유지해 낙상을 차단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췄다.

"이 아이디어가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사업화될 수 있었던 건 상업적인 가능성뿐 아니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갖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 정책상 기초 의료기기 분야를 지원한다는 것이 메리트 중의

하나로 작용했고, 무너진 기초 의료기기 생산산업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로 어필한 결과 선정될 수 있었죠."

이후 창조경제타운의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거쳐 본격적인 기업의 모양새를 갖춰나갔다.

"각 부처의 지원금과 지원제도에 적합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일, 투자 유치(IR)를 위한 프레젠테이션(PT) 준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링을 적극 활용했어요. 그 결과 약 2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본궤도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시회에 참여해 제품 홍보 기회를 얻었고, 이는 곧 투자로 이어졌다.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으로 참여한 전시회에서 시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약 11억 원의 구매의향서(LOI)를 체결하는 등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이 밖에 혁신센터가 입주기업에 부여하는 여러 혜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투자 유치에 힘쓴 결과, ㈜네오스프링으로부터 주식 인수 투자를 받아 총 17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죠."

기업 전담 멘토의 1 : 1 밀착 멘토링
사업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롤모델 제시까지 한 번에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원금 및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면, 그 밖의 세부적인 기업 운영 측면에서는 기업별 전담 멘토의 도움을 얻는다. YB소프트의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이병기 자문위원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병기 멘토님에게는 주로 사업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노하우, 지식들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영업마케팅 분야에서 근무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계시죠."

대기업 영업마케팅 부서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이병기 자문위원은 본인의 수십 년 노하우는 물론 인적 네트워크까지 풀가동해 YB소프트를 돕고 있다.

"유 대표는 기술적으로는 아주 강하지만 경영이나 마케팅 쪽으로는 약했어요. 회사의 기본적인 인사체계부터 보고서 쓰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조언해줬죠. 수출에 관한 관세 교육이나 물류 교육 등 제가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 없는 부분들은 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돕고 있어요. 때로는 숙제도 내고, 주간 보고도 받고, 궁금한 점은 수시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주고받을 만큼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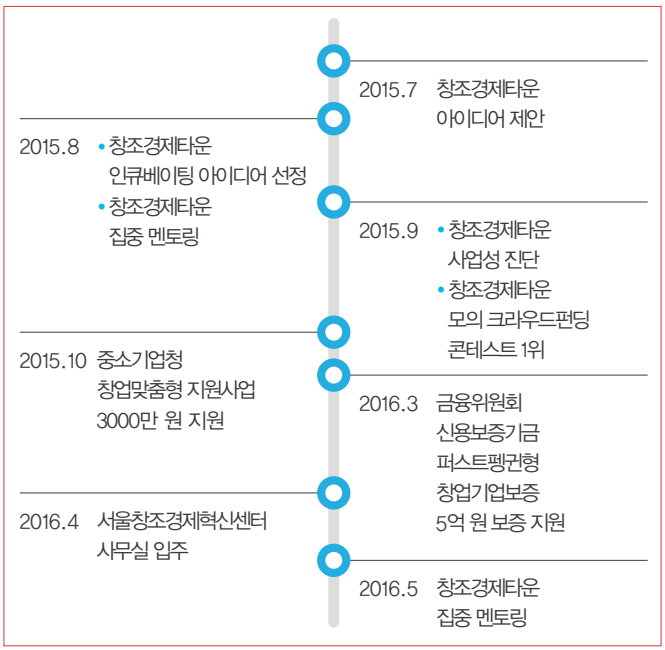
유 대표가 얻는 사업적 노하우만큼이나 이 자문위원이 느끼는 보람도 크단다.

"대기업에서 배운 오랜 경험을 중소기업에 전해주고, 그 중소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돕는다는 것이 매우 보람됩니다. YB소프트가 시장에 안착하면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보람된 일이고, 저 역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사는 데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이처럼 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설립 당시 1인 기업에 불과했던 YB소프트는 3년 만에 12명의 직원과, 제품을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글로벌 강소기업의 꿈이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날개를 단 셈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더 나아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디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이디어뿐인 예비창업자에게 경영과 판로 개척 등 사업화의 길을 마련해주는 디딤돌이 될 테니까요." G

낙상 방지 휠체어 사업화 지원 내용



태아 심장박동 기록기 개발 | ㈜나만의길 **이창근** 대표

"'태아에서 무덤까지' 심장박동 측정해볼까요"

©㈜나만의길

1 메이크어웨이를 착용한 뒤 기기와 연동된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면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심전도 그래프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태아의 일생까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이창근 ㈜나만의길 대표가 산모와 태아의 심장박동을 측정하는 웨어러블기기 '메이크어웨이'를 들고 있다.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우리의 삶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면 멋지지 않을까요? 전 일생을 말이에요. 심지어 엄마 배 속의 태아 시절부터요."

'메이크어웨이(Make a Way)'의 시작은 이 같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산모와 태아의 심장박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 이창근 ㈜나만의길 대표는 하루의 일과를 기록하는 라이프로그(Life Log) 서비스를 개발하던 중 태아의 일생을 기록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라이프로그는 개인의 일상을 디지털로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스마트폰의 확산과 웰빙·웰다잉으로 대표되는 질 높은 삶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새롭게 떠오른 정보통신기술(ICT)이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폭넓은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진 핀란드에서는 '태아에서 무덤까지'를 그 모토로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일생의 시작인 태아 시절도 기록으로 남겨야겠구나 싶었죠. 왜 산모들이 병원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을 보며 흐뭇해하고 앨범 안에 넣어두기도 하잖아요. 그걸 태아가 배 속에 있는 내내 집 안에서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게 메이크어웨이입니다."

나만의길은 스마트폰에 기록된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 사진, 누리소통망(SNS) 이용 명세 등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정리해 보여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일종의 디지털 다이어리인 셈이다. "이 같은 기록이 하루, 1년, 10년 이상 쌓이면 그야말로 한 사람의 일생의 기록이 되는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 무엇보다 나만의길이 가진 차별점은 동영상 서비스에 있다. 메이크어웨이의 최종 기술 목표는 심장박동 수를 측정하는 동안 행복한 산모의 모습을 360도 카메라로 촬영해 심전도 그래프와 함께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생명의 시작 태아 때부터 일생 기록하고파 태동 느끼는 산모 모습 담는 기술도 개발할 것

'일상을 담는' 기기는 한 손 안에 들어오고도 공간이 남을 만큼 작고 가벼웠다. 기기에 달린 이어폰같이 생긴 선을 배와 가슴 위에 올려놓고, 다른 한쪽 선은 휴대전화와 연결해 앱을 실행하면 된다. 직접 가슴 위에 선을 부착하고 앱을 실행하니 곧바로 휴대전화 화면에 붉은 색 그래프가 출렁인다. 초 단위로 변화하는 심장박동 수가 화면에 숫자로 표시되고 이를 알리는 음성도 함께 흘러나온다. 산모의 경우 복부에서 발생하는 생체신호에서 태아의 신호를 분리하여 스마트폰에 태동과 심장박동 수를 기록하는 원리다.

순간과 일상을 기록하는 데 취지가 있었기에 관건은 언제 어디

서든 사용할 수 있는 휴대성과 간편성이었다. 이 대표는 이같이 메이크어웨이를 웨어러블기기로 개발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다. 이 대표는 "ETRI에서 기술 개발을 워낙 잘해놓은 덕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제품 개발을 할 수 있었다"면서 "메이크어웨이가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는 창조경제타운의 전방위적인 도움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4년 창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창조경제타운의 문을 두드렸죠. 한 달 동안 800건 이상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 29개의 우수 아이디어(인큐베이팅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회사 설립부터 시제품 제작, 마케팅, 해외 진출 등 그야말로 사업 전반에 걸쳐 주종익 멘토의 도움이 컸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문위원인 주종익 멘토는 삼성과 인켈 등 다국적기업을 두루 거친 경험을 아낌없이 전해줬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지원금 등이 더해져 그해 12월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죠. 그 뒤 기술 이전을 받았고 메이크어웨이가 태동을 시작한 겁니다."

메이크어웨이는 지난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에 선정돼 올 2월 시제품 1000개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실제 제품 제작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ETRI 기술 이전받아 웨어러블 심박측정기 개발
창조경제혁신센터 인프라 활용해 이베이·아마존 진출 성공

메이크어웨이는 해외 소비자를 주요 타깃으로 한다. 첫 진출 국가는 미국이었다. 초음파 검사 등이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미국에선 산모들이 집에서 자가 진단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가 진단용으로 쓰이는 도플러 초음파기기는 개발된 지 50년도 더 된 데다 인체 유해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점을 간파한 이 대표는 이베이, 아마존 등을 통해 먼저 미국 산모들에게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기기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해 유럽의 CE, 미국의 FC, 우리나라의 KC 등 인증마크도 획득했다. 이 대표는 사업 전망을 밝게 내다봤다.

"아직 기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인지도가 약한 것이 약점입니다. 도플러기기가 오래된 만큼 그것을 새로운 기기로 대체하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죠.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해성보다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니까요. 그래도 구글 애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한 페이지뷰(조회 수)는 높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제품의 안전성과 기술력, 차별화된 서비스를 알리면 소비자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메이크어웨이 사업화 지원 내용

메이크어웨이는 대구센터가 가진 기존 인프라를 통해 시장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출산율이 높은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전 세계 22개국에 곧 제품을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대구센터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협력해 내년부터 오프라인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딜러를 모집해 TV 홈쇼핑 등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긴 시간과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고착된 소비문화가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죠. 이 점이 스타트업에게는 가장 큰 난관입니다. 다행히 정부의 사업 지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받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 보증제도 같은 것이 더해진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G

의류 구김 방지장치 개발 | 캐럿 **양준식** 대표

“셔츠 다림질 고민… 진동으로 해결했죠”

©김도길

©양준식

1 의류를 한 방향으로 계속 털어줌으로써 먼지, 냄새, 구김을 제거하고 젖은 빨래를 빠르게 건조해주는 의류관리기 런드리. 2 양준식 대표는 “머릿속의 아이디어가 기술이 되고 경제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창조경제타운은 열린 창구”라고 말했다.

김건희 | 위클리 공감 기자

● 평범한 직장인이던 캐럿 양준식(43) 대표가 의류관리기인 런드리를 개발한 계기는 ‘본인의 불편함’ 때문이었다. 직업교육 강사로 활동하던 그는 날마다 정장을 입어야 했는데 와이셔츠를 하루 이틀꼴로 물빨래하다 보니 어떤 날은 덜 마르거나 잔뜩 구겨진 셔츠를 입고 출근해야 했다. 매번 다림질을 하는 것도 일이었다.

대안을 찾아야 했다. 마침 구김이 덜 가고 빨아도 다릴 필요가 없는 링클 프리 셔츠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다. 큰마음 먹고 몇 벌 구입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전체적으로 일반 셔츠보다 구김이 덜 했지만 칼라나 소매 끝은 여전히 구겨져 있었다. 강단에 올라 강의해야 하는 그로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장마철,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젖은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는데 옷마다 꿉꿉하고 냄새가 났다. 양 대표는 궁여지책으로 빨래를 흔들었다. 그러자 빨래가 빠르게 건조되고 구김이 펴졌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형광등이 켜졌다.

“빨래를 흔들어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면 전날 밤늦게 빨아도 다음 날 아침에 입을 수 있으면서도 옷의 구김을 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013년 8월 양 대표는 창조경제타운의 문을 두드렸다. 아이디어 이름은 ‘빨래 안 다려’.

“초창기 고안한 아이디어는 대형 세탁소 옷걸이 모양의 구김 방지장치였어요. 셔츠를 최대한 넓게 펼쳐 구김 없이 마르도록 설계한 건데,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양산했을 때 가로 2m, 세로 1m에 달하더군요. 셔츠의 크기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품명도 ‘런드리’라고 지었어요.”

와이셔츠 건조·구김 고민하다 진동 효과 발견
아이템 평가받고 싶어 창조경제타운에 아이디어 제안

창조경제타운 역시 그의 아이디어를 눈여겨봤다. 두 가지 측면을 주목했는데 바로 기능성과 독창성이었다. 아울러 구김 방지장치를 장착한 의류관리기는 수요자의 니즈가 분명해 시장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다. 우선 제품의 크기가 너무 컸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창조경제타운이 양 대표에게 아이디어의 방향을 재설정할 것을 권했다. 그날 이후 런드리는 소형 가전제품으로 재탄생했다.

“기존 제품에 비해 매우 작고 충전 배터리를 장착해 무선 작동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가정용 런드리는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5~6시간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발광다이오드(LED) 표시 장치가 완료·충전 필요를 안내하도록 했어요. 반면 숙박업소용은 배터리 유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유선 제품으로 만들었고요."

개발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섬유 구조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일반적으로 의류에 한 방향으로 힘이 집중적으로 가해지면 섬유 구조가 늘어진다. 이를 바꿔 말하면 의류에 힘을 가하면 어긋난 섬유 구조를 재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고른 힘(진동)과 수분 공급이고, 특히 무거운 옷에도 강한 진동을 고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했다. 고성능 모터와 새로운 작동방식을 개발하는 데 2년여가 걸린 이유다. 양 대표가 개발한 고성능 모터는 190rpm(아르피엠 : 회전속도의 단위)의 강한 진동을 자랑한다. 이는 1분 동안 190회 진동이 가해진다는 뜻이다. 의복 리프레시 장치도 개발했는데, 옷걸이의 하중부를 고정하고 하중이 없는 목 부분을 밀어서 움직이는 기술이다. 덕분에 모터만으로 2kg에 달하는 겨울용 코트를 최대 4시간 진동시켜 말릴 수 있다. 현재 이 기술은 국내와 일본에 특허로 등록됐다.

멘토링 통해 시장성 분석·사업자금 로드맵 구상
홈쇼핑 론칭 앞둬… "창조경제타운은 열린 창구"

사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양 대표는 런드리 2탄을 개발해야 했다. 하지만 사업자금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2014년 6월 중소기업청 창업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48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때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창조경제타운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만난 경영 컨설팅 기업인 비즈니스포커스 대표인 원종표 멘토였다. 그는 양 대표의 아이디어가 제품화될 경우 시장성이 얼마나 될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받아 창업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 과정을 통해 창업자금을 확보하는 로드맵을 구상할 수 있었다. 마침 운도 따랐다. 양 대표는 2015년 6월 중소기업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1억 원을 확보했다.

양 대표는 2015년 두 번째 런드리 개발에 착수했다. 업그레이드형인 런드리 핫 윈드다. 기본형인 런드리에 회전 날개를 도입하고 열풍 기능을 추가해 의류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까다로운 양복은 물론 하루만 입어도 무릎이 튀어나오는 청바지, 전날 저녁에 빤 셔츠까지 관리가 가능하다. 디자인과 실용성에도 신경 썼다. 런드리 핫 윈드는 거추장스럽고 미관을 해치는 어댑터 케이블 대신 대용량 배터리를 넣었다.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5~6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1회 20분가량 작동할 경우 총 18회 사용할 수 있다.

특허도 등록했다. 2015년 9월 양 대표는 특허청 국민행복기술구현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다림질이 필요 없는 옷걸이'와 '다림질이 필요 없는 분리형 옷걸이'의 특허를 각각 출원했다. 창조경제타운에 아이디어를 제안한 지 2년 만에 이뤄낸 결실이었다.

런드리는 꾸준히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오픈마켓과 행복한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입점한 런드리는 홈쇼핑 진출을 앞두고 있다. 해외 시장도 공략한다. 미국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과 중국 쇼핑몰인 궈메이에 입점하기 위해 마케팅과 론칭 준비를 하고 있다.

양 대표는 "창조경제타운이야말로 열린 창구"라며 "머릿속의 아이디어가 기술이 되고, 경제 가치를 창출하며, 사업화를 이룰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가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었던 이유다. G

런드리 사업화 지원 내용

사물인터넷 기반 로봇 놀이학습기 개발 | 프레도 **김관석** 대표

"스마트블록 갖고 놀며 한글 깨치기, 좋잖아요"

1 2 프레도 놀이·학습 플랫폼인 스마트블록과 로봇플랫폼. 3 프레도 김관석 대표.

박샛별 | 위클리 공감 기자

● '그~아', '느~아', '드~아'. 두 블록이 만나는 순간 하나의 소리가 탄생했다. 자음, 모음, 알파벳, 숫자로 이뤄진 수많은 블록들은 올바른 단어를 만들 때마다 보드에서 딩동댕 소리와 함께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들려주고, 틀렸을 경우에는 다시 맞춰보라고 안내한다. 똑똑한 로봇이 한글과 영어를 열심히 배운 아이들 곁에서 놀이 친구가 돼 준다.

양방향 소통의 학습 교구에 대한 필요성 체감
IT 콘텐츠·플랫폼 경험 살려 스마트블록 개발

사물인터넷(IoT) 기반 놀이·학습 및 로봇 플랫폼인 '스마트블록'은 11년 전 네 살배기 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유익한 교구를 찾던 부모에 의해 탄생했다. 프레도 김관석(42) 대표는 시중에 자음, 모음을 벽보로 붙여 가르치는 학습 포스터 등 일방적 암기식으로 구성된 학습 교구밖에 없는 현실을 보며 아이들이 직접 재미있게 놀면서 학습할 수 있는 놀이·학습 플랫폼을 직접 만들게 됐다.

"처음에 수작업으로 일일이 자음, 모음을 써 붙인 블록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낱말놀이를 해봤어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이 블록을 직접 만지고 발음하며 학습하니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한글도 보름 만에 다 떼고요."

특히 김 대표는 기존의 학습 교구를 보며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의 격차를 체감할 수 있었다. 아날로그적 교구는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하기에 학습 효과가 크지만, 학습의 확장성이 없어 학습 수준이 높아지면 고스란히 버리고 새로 사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 태블릿 등 디지털 교구는 학습 확장성은 좋지만 손가락 하나로 터치하는 방식이라 아이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해 교육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착안해 김 대표는 블록을 일일이 만지면서 조립하며 디지털 플랫폼과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블록이란 아이디어를 고안했다.

김 대표는 대기업에서 정보기술(IT) 콘텐츠·플랫폼 관련 마케팅과 전략 업무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12월 알파벳, 자음, 모음 등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이 장착된 스마트블록을 개발했고, 3개의 특허를 등록했다. 하지만 스마트블록이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는 더 많은 난관들을 해결해야 했다. 알파벳, 한글, 사칙연산 등의 정보를 담은 블록이 연결됐을 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

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필요했다. 또 그러한 내용이 제대로 된 발음으로 소리가 나야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모든 검증을 거치는 데 무려 12년이 걸렸고, 올해 3월 블록을 통한 언어학습 알고리즘이 100% 인식하는 데 성공했다.

김 대표는 오랜 기간 기술 개발은 물론 사업화를 위해 발로 뛰면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지만 창조경제타운을 만나면서 굳게 닫힌 문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제가 2013년 12월에 창업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없을까 알아보던 중 창조경제타운을 알게 됐습니다. 2014년 3월 스마트블록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한 달 뒤 창조경제타운의 인큐베이팅 아이디어에 선정됐죠. 이후 정부 지원은 물론 멘토라는 든든한 조력자도 만나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멘토링 통해 생산단가 80% 절감
R&D 연계사업 선정 2억3900만 원 지원받아

스마트블록은 2014년 4월 창조경제타운 후원사인 SK텔레콤의 '브라보 리스타트' 사업에 선정돼 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2014년 6월에는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도 연이어 선정되며 55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화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특히 기술 개발을 마치고 사업화 단계에 접어든 프레도 김 대표는 창조경제타운의 멘토들과 머리를 맞대고 제품의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그 결과 김 대표는 생산단가를 80% 이상 절감할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국제 특허까지 얻을 수 있었다. 2015년 11월에는 창조경제타운 연구개발(R&D) 연계 지원사업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화연계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돼 2억39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으며 제품화까지 성공했다.

스마트블록은 현재 EBS 교육방송 콘텐츠 등과 연계해 게임처럼 즐기며 학습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로도 개발돼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아이가 학습한 빅데이터는 학부모용 앱에 전달돼 부모는 아이들의 학습 수준과 어려워하는 부분 등을 체크하고 함께 고쳐나갈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로봇은 물건을 옮기거나 청소 등 일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아이와 함께 대화하고 경주놀이도 하는 등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김 대표는 실제 방송국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시제품을 유치원에 기습적으로 소개할 기회가 생겼는데 유치원생 아이들이 순수하게 좋아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정직하잖아요. 스마트블록을 직접 만져보고 단어를 맞추고 로봇과 함께 놀이하면서 재미있다고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는 걸 보면서 '정말 창업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보람이 생겼습니다."

스마트블록 사업화 지원 내용

프레도는 이렇듯 함께 소통하고 학습부터 놀이까지 양 방향으로 주고받는 놀이·학습 플랫폼을 기반으로 올해 12월 스마트블록 제품을 정식 판매할 계획이다.

"제품화하기까지 1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했고, 혼자 이끌어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많은 조력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또 사업비용까지 지원받으니 큰 힘이 됐죠."

프레도 스마트블록은 K-글로벌 300기업에 선정되며 제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등 해외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인천시, 세종시 교육청과도 스마트블록을 방과 후 교실 시범 서비스로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 대표는 "우선 올해 제품을 출시해 한국과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이후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프레도는 기존 아날로그 저금통에 사물인터넷을 연계해, 아이들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저금을 하면 은행의 네트워크를 통해 저축과 기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스마트 저금통을 개발해 올해 9월 KB금융지주와 함께 중·장기적 연계사업을 체결했다.

"우리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어 시작한 사업이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의 도움도 컸습니다. 앞으로 아이와 엄마가 행복할 수 있는 놀이·학습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G

창조경제타운 우수 멘토 4인의 이야기

창업의 모든 과정에 일급도우미 있었다

내 아이디어가 정말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창조경제타운은 창업 단계별, 분야별 전문 멘토단이 창업자들의 사업화를 위해 체계적인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우수 멘토 4명을 만나 창조경제타운은 어떤 곳이고, 창업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봤다.

박샛별 | 위클리 공감 기자

창조경제타운 우수 멘토 4인 소개

아이디어 구체화,
글로벌 활로 진출 멘토링
김치원(한국공항공사 과장)

아이디어 구체화,
기술 구현방안 멘토링
김성두(CEP 대표)

마케팅 및
자금 관련 멘토링
전세훈(엔터프라이즈제이 대표)

시제품
제작
최진(루트아이템 대표)

● **창조경제타운의 우수 멘토 여러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멘토링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성두 현재 창조경제타운에서 아이디어의 초기 사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아이디어 구체화와 기술적 구현방안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어요.

김치원 저는 아이디어 구체화와 해외 진출 활로 모색에 대한 전문 멘토링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나노기술을 이용한 녹조 제거장치 개발, 유체역학을 이용한 신개념 항공체 기술 등 기술 관련 멘토링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훈 제 전문 분야는 경영과 자금,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사업화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조언하고 있죠.

최진 저는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제품 개발 전문기업으로 20년간 운영해온 노하우를 멘티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이 예비창업자들에게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세훈 창조경제타운은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아이디어 구체화부터 시제품 제작 등 창업 단계별로 전문 멘토에게 멘토링을 받으며 꿈을 구체화할 수 있죠. 또 정부부처의 사업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실제적인 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멘토링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치원 창조경제타운 내 멘토링은 창업 단계별로 멘토단을 만날 수 있고요. 멘토단은 변리사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멘토링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요. 또 우수 아이디어를 매달 멘토단이 선정해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우수 멘토 선발 등 내부적으로 다양한 육성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기간은 한 창업자당 보통 최장 90일이라 그사이에 집중적으로 멘토링하기 위해 노력하죠.

멘토들이 생각하는 창업에 필요한 마인드는요.

최진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 그보다 즐길 수 있는 일이 가장 효과적이라고들 하죠. 창업도 현재 하는 일에서 즐길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두 창업하고자 하는 목표가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인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인지를 제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창업 후에는 직원이나 외주업체에 업무를 맡기면 된다는 안일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마음은 접어두고 업무를 직접 꼼꼼히 챙기려는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것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제품 혹은 사업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김성두 제가 처음에 창업할 때 했던 고민이에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제품 양산을 하려면 어디에 문의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모든 길이 막막했죠.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1순위 순서는 인터넷 검색이에요. 인터넷으로 유사한 방법과 기술의 제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 이후엔 검색한 정보를 기반으로 본인 아이디어의 장단점을 비교·보완하고 아이디어의 구조적, 기술적 내용의 구현 가능 여부를 파악해 정리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선행으로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진 맞아요. 그리고 아이디어와 제품이 자신만의 독특한 차별화 요소가 있고, 시장에 구매할 고객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죠. 결국 기업은 시장성과 수익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창업자금은 자기자본이 풍족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자신의 사업과 맞는 정부 지원사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치원 저는 멘티들에게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누리소통망(SNS) 멘토링 방에 한 단어라도 올려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생각을 확장하라고 권유합니다. 두서없이 생각난 아이디어가 나중에 멋진 제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끊임없이 메모하고 생각하는 것이 창업의 좋은 시작점이 아닐까요?

창업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전세훈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나 아이템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를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죠. 창업 이후에는 경영관리 측면에서 자금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타인자본의 경우에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련 사업에 응모하고 신청하는 노력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김치원 초기 스타트업 혹은 예비창업자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특허와 지적재산권 등으로 본인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멘토링한 창업자는 아이디어가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돼 시제품 제작까지 마쳤는데, 예전에 공모했던 공모전 시행기관에서 아이디어를 도용해 모두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경우도 있어요. 창업자들도 주의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좀 더 엄격하게 만들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비창업자들에게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김성두 창업은 취업이 안 돼서, 할 게 없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업을 결심했다면 냉정한 판단과 분석을 통해 창업의 최종 목표를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발로 뛰며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멘토단도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창업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노하우를 전수하며 힘을 보태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G

창조경제타운 멘토단은?

창조경제타운에는 정보통신, 교육·문화, 안전·의료·복지 등 분야별로 전문 멘토단이 구성돼 있다. 멘토단은 현재 1886명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대학교수, 대·중소기업 임직원 및 대표 등 각계각층 민간 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특히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핀테크 및 보안솔루션 NSHC 최병규 부사장 등 업계 저명인사들도 멘토단에 대거 참여해 예비창업자들의 고민을 함께 듣고 있다.

멘토링은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멘토링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제안 이후 사전 진단 과정을 거쳐 전문 멘토가 사업화 가능 여부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고 이후 30일간의 온라인 멘토링 기간을 거쳐 아이디어를 다듬어 선발위원회(전문위원) 의견에 따라 아이디어를 육성하게 된다. 육성된 아이디어는 중소기업청, 특허청 같은 정부부처나 삼성, 포스코, SK텔레콤 등 민간기업과 연계해 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 유통·판로 개척 등의 형태로 사업화가 진행된다.

수급액 2배 목표 14년 앞당겨 20만 원
연간 448만 어르신에게 든든한 노후 제공

ⓒ동아DB

기초연금으로 삶의 여유가 생긴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늘었다. 사진은 어린이집 등에서 인형극 활동을 하는 군포시니어클럽 회원들.

최호열 | 위클리 공감 기자

● 박근혜정부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도입·확대해왔다. 특히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시행과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은 역대 정부가 엄두를 내지 못했던 파격적인 조치였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평균 수급액이 9만9100원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며 기준연금을 2배인 20만 원으로 조정했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체계에서는 2028년에나 가능할 수 있던 것을 14년이나 앞당겨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개선한 것이다.

기초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정도인 448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빈곤층뿐 아니라 서민층에도 큰 도움
만족도 조사 결과 92.5% "생활에 도움이 된다"

대전 서구에 사는 김모(78) 씨는 홀로 살며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나 그 수입만으로는 지병인 심근경색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매달 고정 생활비(전기·수도요금)를 충당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심근경색 치료약도 안정적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은 빈곤층뿐 아니라 서민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이모(67) 씨는 기초연금 덕분에 지난해 여름 형제들과 함께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형제들 모두 만 65세가 넘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그 돈을 모아 '죽기 전에 한번 같이 가자'고 했던 제주도 여행의 꿈을 현실로 이룬 것이다. 이 씨는 "조촐한 여행이었지만 형제들 모두 죽을 때까지 간직할 행복한 추억이었다고 기뻐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부부 합산 월 32만 원의 기초연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며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꿈을 꾸게 해주었다"고 말한다. "전에는 뭘 하고 싶어도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게 폐만 끼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기초연금이 생기면서 그 돈을 쪼개 문화센터 등을 다니며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하니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활력도 생겼다"는 이 씨는 "기초연금이 아들딸보다 효자"라며 밝게 웃었다.

이처럼 기초연금 시행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고 빈곤이 완화됐으며,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4년 4분기 기준으로 노인가구 이전소득(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이 65만6000원에서 75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으며, 노인 상대빈곤율도 48%에서 44%로 전년 동기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또한 노인가구 5분위 배율(상위 20%/하위 20%)도 10.5배에서 7.9배로 크게 개선됐다.

기초연금은 수급자에게도 큰 만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국민연금연구원이 실시한 기초연금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2.5%, '잘 도입했다'는 응답이 91.9%에 달했다.

기초연금 수령에 따라 달라진 생활의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항목이 3.7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다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됐다'(3.4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당당해졌다'(3.0점)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통해 사회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생활에도 어느 정도 여유를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4월부터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0.7% 상승)을 고려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만4010원으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유리하도록 지급액을 조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이 필요한 노인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던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중앙에서 일괄 실시하고, 매년 각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106개소)와 협업해 거주불명등록 노인을 집중 발굴·안내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 복지요구 고려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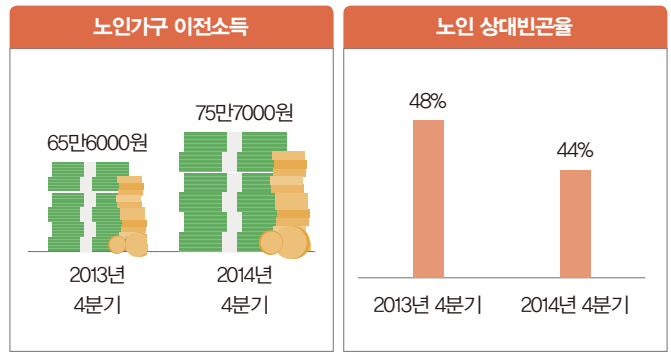
수급자 132만→165만, 평균 지원액 40만7000원→51만4000원 증가

충북 청주시에 사는 안모(57) 씨는 희귀질환을 앓는 둘째 아들 간병을 하다 보니 일을 하지 못하고, 아내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월 65만 원가량을 벌고 있다. 둘째 아들의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독립해 살고 있는 큰아들(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201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가 5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아내의 월급과 기초생활보장 지원금만으로는 세 가족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 힘들었지만, 2015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기초생활보장 월 평균 급여액이 약 45만 원으로 증가해 한숨 돌리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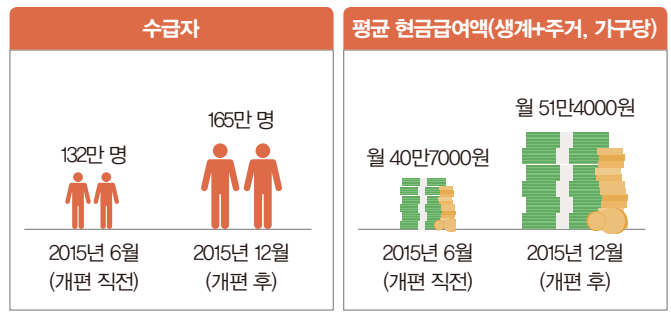
박근혜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할수록 유리하고 각자의 여건에 맞게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했다. 공공부조의 핵심 제도이며 빈곤층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도입된 이후 15년 만에 상대적 빈곤과 개별 복지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형태로 개편된 것이다.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개편에 따라 총 수급자는 개편 직전인 2015년 6월 132만 명에서 2015년 12월에는 165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가구당 월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급여)도 40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14만 가구는 월평균 현금급여가 17만2000원가량 늘어났다.

기초연금 도입 효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도입 효과



자료 : 보건복지부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이 최저생계비라는 단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지원해 수급자로 선정되고 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다 받지만, 일을 해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만 넘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구조로 돼 있었다.

개편된 '맞춤형 개별급여'는 이러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중위소득'을 기준선으로 사용하는 등 상대적 빈곤 수준과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별도로 설정해 기준에 부합하는 급여를 각각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수급자가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늘더라도 생계급여는 중단되지만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했다. G

세계 세 번째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

신약 개발 등 과학기술 새 심장이 뛴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9일 경북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식에 참석해 "포항에서 만들어질 '꿈의 빛'이 인류의 미래를 환히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가영 | 위클리 공감 기자

● 9월 29일 경북 포항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준공됐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갖춘 국가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열린 준공식에 참석해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세계를 선도해나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심장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방사광가속기란 빛의 속도로 가속한 전자에서 나오는 밝은 빛(방사광)으로 세포와 단백질 등 초미세 물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대한 실험장치다. 4세대 방사광은 3세대보다 1000배 빠른 속도와 1억 배 밝은 빛(햇빛의 100경 배)으로 미세물질을 분석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가 세포를 뚫고 들어가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가능하다.

신약·신소재·청정에너지 개발 가속도
박근혜 대통령 "미래 신산업 선점에 필수적인 인프라"

현재 전 세계에서 35기가 가동 중이며 이 중 가장 최신인 4세대는 미국과 일본에 각 1기씩 있다. 지난 4월 25일 우리나라가 4세대 방사광가속기 전자가속 실험에 성공하면서 한국도 4세대 가속기 보유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2011년 4월부터 4년 9개월에 걸쳐 건설된 4세대 가속기는 실증 실험을 거쳐 내년부터 연구자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4세대 가속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3세대 가속기로는 접근할 수 없었던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해진다. 대표적으로 신약과 신소재, 청정에너지 개발에 가속도가 붙는다.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와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 모두 가속기를 통해 단백질 결합구조를 밝혀낸 결과 탄생한 제품이다. 또한 현재까지 구조가 완벽히 밝혀진 단백질은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미지의 단백질 구조 연구에도 가능성이 열린다. 따라서 치매, 당뇨, 유전자 질환은 물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기술 개발과 의약품 복합체 연구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데이터 저장과 처리 능력이 한층 향상된 고집적 반도체 소자 개발도 가능해진다. 식물의 광합성은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이뤄지는데,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해 인공 광합성 연구도 할 수 있게 된다. 태양전지, 연료전지, 수소저장장치 같은 친환경에너지 개발의 기술적 어려움을 뛰어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도영 광주과학기술원(GIST) 물리광과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고 새로운 연구 영역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에 의미가 있다"며 "물리, 화학, 생물 등 기초과학 영역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초고성능 전자소자, 에너지, 신약 등 미래 기술 개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그동안 인류가 풀지 못한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자 미래 신

3, 4세대 방사광가속기 비교

4세대		3세대
2016년 4월	가동 시작	1995년 9월
태양 빛의 100경(10의 18승) 배	빛 밝기	태양 빛의 100억(10의 10승) 배
1팸토초(10의 –15승)	측정 가능 시간	1피코초(10의 –12승)
0.1nm(나노미터) 단일 파장	빛 성질	적외선부터 X선까지 넓은 파장대
단분자 단백질, 살아 있는 세포	활용 분야	거대 분자 형태의 결정단백질, 냉동세포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 선점에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라며 "포항에서 만들어질 '꿈의 빛'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는 물론 인류의 미래를 환히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개발해 선도형 과학기술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과거의 추격형 과학기술에서 벗어나 창의적, 도전적 연구에 승부를 거는 선도형 과학기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방명록에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대한민국 첨단과학의 미래를 여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적고 나서 시설을 하나하나 둘러봤다.

첫 민간주도형 혁신센터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76개 창업기업 육성, 91억 원 매출 성과

이어 박 대통령은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포항센터)를 방문해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보육기업과 센터 직원 등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누구나 아이디어나 기술을 갖고 방문하면 마치 마법사가 재를 뒤집어쓴 신데렐라를 휘황찬란한 공주로 변신시켜주듯이, 창업에서 주식 상장(IPO) 단계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적극 지원해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포항센터는 2015년 1월 개소 이후 76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해 135명의 고용 효과, 매출 성과 91억 원, 484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포항센터는 최초의 민간 자율형 혁신센터로 정부 지원 없이 포스코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포항센터의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들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라온닉스'는 신소재 투명전도성 순간발열체(TCM)에 전기를 공급하면 순식간에 온도를 500℃까지 올리는 원리를 이용한 친환경 순간온수기를 개발해 2015년 아이디어 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포스코는 지난 7월부터 이 기술을 직접 제철소에 적용해 활용하고 있다. 홍합 단백질 기반 생체접착제를 개발한 '네이처글루텍'도 올해 열린 '도전! K-스타트업'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라온닉스의 성공 사례를 귀담아들은 뒤 "지난해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에서 시제품을 봤는데 1년 만에 양산제품을 선보일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뤄 기쁘다"며 "소외계층이 쉽고 싸게 난방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는 아름다운 꿈을 꼭 이루라"고 격려했다.

또 다른 보육기업인 네이처글루텍의 성공 사례를 들은 박 대통령은 "군인들이 전투훈련 중 얻은 상처를 쉽게 아물게 하고, 임산부들이 제왕절개 수술 후 봉합실이 없어도 손쉽게 피부를 접착시켜 흉터를 남기지 않는 획기적인 기술"이라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기술이 사업화로 연계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G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햇빛보다 100경 배 밝은 빛 '슈퍼현미경' 물이 산소와 수소로 나뉘는 순간까지 포착

© 동아DB

9월 29일 준공식을 가진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내부.

이정아 | 과학동아 기자

● 우리나라 포항가속기연구소에 '꿈의 빛' 시대가 열렸다. 지난 9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포스텍은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첨단 대형 연구 장치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식을 열었다. 2011년 착공해 5년 만에 완공된 것이다. 방사광가속기는 전 세계에 35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최신인 4세대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 세 번째로 지어졌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했을 때 생기는 밝은 빛(엑스선)으로 미세한 물질이나 현상을 관찰하는 장치다. 쉽게 말해 '건물만큼 거대한 슈퍼현미경'이다. 단백질 같은 생체구조를 분자 수준에서는 물론, 원자 수준에서도 볼 수 있다.

과학자들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해 비아그라의 단백질 결합구조를 관찰해 어떻게 발기부전을 치료하는지 밝혀냈고,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개발하는 데 공헌하기도 했다.

이미 1996년부터 가동했던 포스텍의 기존 방사광가속기(3세대)와 비교해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모양부터 확연히 다르다.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3세대는 원형 모양이다. 동그란 가속기를 이용해 전자빔을 구부리며 가속하는데, 이 과정에서 접선 방향으로 빛이 나온다. 그러나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막대처럼 긴 모양이다. 이전 가속기에서는 여러 빛이 섞여 있어 원하는 파장을 골라 쓰는데, 4세대에서는 한 파장의 빛을 강력하게 내뿜어 좀 더 정밀하다. 약 2μm(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크기의 물체를 구분해낼 수 있다.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40분의 1 수준이다.

생체 정교하게 모방하는 기술 개발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 운전에 들어가

4세대 방사광가속기에서 나오는 빛은 바로 이전의 3세대보다도 1억 배나 밝고, 햇빛보다도 100경 배 밝다. 파장의 폭도 짧아서 나노미터 단위(10억분의 1m)로 작은 물질을 펨토초 단위(1000조분의 1초)로 분석할 수 있다. 말하자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분자나 원자가 움직이는 현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뭇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과정이나, 바이러스가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 심지어 물이 산소와 수소로 나뉘는 순간까지도 포착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해 이전보다 효과가 뛰어난 신약을 만들거나, 생체를 훨씬 정교하게 모방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살아 있는 세포 속에서 단백질 같은 생체분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순간순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매와 당뇨 같은 난치성질환이 일어나는 기작을 밝힐 수도 있다. 반도체 등 소재 분야에서도 새로운 구조를 만들거나 밝히는 등 도약이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포스텍은 올 연말까지 마지막으로 성능을 검증한 다음,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미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제약 연구소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에 관심이 높다. 또한 포스텍과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인 제넥신이 합자회사를 세워 이를 활용해 자궁경부전암 치료제를 만드는 연구를 계획 중이다.

이번에 지은 4세대 가속기는 길이 1.1km, 높이 3m 정도인 가속기 시설을 두께가 2m인 콘크리트 터널이 둘러싸고 있다. 단층 건물로는 우리나라에서 길이가 가장 길며, 부피도 1만5000m^3에 이른다. 가속기 건물의 바닥 높이 오차는 5mm밖에 되지 않을 만큼 정교하다. 가속기가 있는 부지는 넓이가 12만620m^2(약 3만6488평)로 축구장보다 50배나 넓다.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포스텍은 지난 5년간 덤프트럭 12만 대 분량의 흙을 퍼냈다. G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공동 IR 개최

스타트업과 투자자 의미 있는 만남의 시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10월 6일 서울 명동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공동 IR'에서 농산물 직거래 서비스기업인 파슬넷이 투자자 앞에서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김건희 | 위클리 공감 기자

●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투자자를 만나 사업자금을 유치하는 공동 사업설명회(IR)가 개최됐다.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엔젤투자협회,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공동 IR'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공동 IR에는 엔젤투자자, 엔젤클럽, 액셀러레이터, 벤처기업 투자사인 마이크로VC 등 투자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 IR 대상에 이름을 올린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10곳은 모두 스타트업이다. 파슬넷(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와이즈케어(의료비 할부 금융), 엠플로우(모바일 간편 결제), 백의민족(세탁 O2O 서비스), 모션블루(학습용 스마트 완구), 아우름플래닛(웹 하이라이터), 테이스터스(프리미엄 수제버거), 엑스드론(드론로봇 개발), 윈월드(소수력발전), 더원씨앤씨(모바일 게임 광고)이다.

올해 1월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에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한 기업당 최대 7억 원의 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할 수 있다.

프리미엄 수제버거 제조기업인 테이스터스도 올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이후 후속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공동 IR에 참여했다.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한 결과, 모집금액인 45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총 4120만 원의 투자금을 확보했다. 서경원 테이스터스 대표는 "신생 스타트업들이 벤처캐피털을 상대로 IR를 할 기회가 좀처럼 없는 만큼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공동 IR 같은 창구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공동 IR 대상 기업

회사명	서비스 및 제품 특징	회사명	서비스 및 제품 특징
파슬넷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아우름플래닛	웹 하이라이터
와이즈케어	의료비 할부 금융	테이스터스	프리미엄 수제버거
엠플로우	모바일 간편 결제	엑스드론	드론로봇 개발
백의민족	세탁 O2O 서비스	윈월드	소수력발전
모션블루	학습용 스마트 완구	더원씨앤씨	모바일 게임 광고

자료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투자 유치 경험 없는 스타트업, 투자자 대상으로 회사 홍보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장벽 없애고 창업·투자 활성화 기대

그동안 스타트업은 투자 IR에 참여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최근 스타트업 전용 IR 공간이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투자 유치의 장벽에 부딪혀야 했다.

이번 공동 IR 개최로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계에 민간자금 유입이 촉진되고 투자 기회가 확대되는 등 자본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공동 IR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김봉섭 차장은 "후속 투자를 유치하려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장벽을 없애고,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말했다.

공동 IR를 주관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인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사다. 올해 6월 15일 공식 출범했다. G

코리아 가상현실(VR) 페스티벌 2016 성황리 개최

실제와 똑같은 가상현실 와~ 짜릿하고 실감 나네

©뉴시스

1 '코리아 가상현실(VR) 페스티벌 2016'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로봇과 가상현실을 결합한 체험장치 '로봇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있다. 2 영상기술을 활용한 모래놀이.

김가영 | 위클리 공감 기자

● 최신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기술을 선보이는 '코리아 가상현실 페스티벌 2016'이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일원에서 개최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 생태계 구축'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가상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등 글로벌 가상현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79개 기업(157개 부스)이 참여해 최신 가상현실 콘텐츠와 서비스, 기기 등을 선보였다. 전시회에는 중국, 태국 등 7개국에서 40여 명의 해외 바이어도 참가했다. 가상현실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와의 투자 상담, 수출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를 가졌다.

국내외 주요 가상현실 기업의 최신 서비스와 제품 선보여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초고화질 가상현실 서비스 적용할 것"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세계 최고 수준의 가상현실 기술과 이번에 최초로 공개된 제품 및 서비스에 관심이 집중됐다. 모바일·PC기반 HMD(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 기기) 시장에서 각각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오큘러스, 소니는 HMD용 최신 콘텐츠와 서비스, 시뮬레이터 등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세계적인 게임엔진 회사 에픽 게임즈(미국)와 크라이텍(독일)을 비롯해 최근 가상현실 게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니비루(중국) 등의 제품과 서비스에도 게임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유망 가상현실 개발자와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펼쳐졌다. 먼저 가상현실 챌린지에서는 지난 9월부터 테스트베드상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해온 인디 개발자 16개 팀이 최종 결과물을 발표했다. 또 같은 기간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받은 17개 스타트업이 새로운 가상현실 콘텐츠와 서비스를 전시하는

'스타트업 콘텐츠 공모전'도 개최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현실 시장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가상현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콘퍼런스와 세미나, 국제 워크숍도 마련됐다. 6일 가상현실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 전문가를 초청해 해당 기업의 동향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8일 기술 세미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유니티, 오큘러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하우들이 공유됐다.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게임뿐 아니라 테마파크, 방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혁신적인 가상현실 서비스와 제품을 오감으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서 가상현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번 행사는 DMC(디지털미디어시티) 페스티벌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벤트들을 세계 최초로 4K UHD급 가상현실 생중계로 제공해 화제가 됐다. 개막 축하공연 등을 고성능 가상현실 카메라로 촬영해 DMC 문화광장에 조성된 기가 와이파이 등 초고속 인프라를 이용해 통신 3사가 생중계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오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세계 최초로 초고화질(8K UHD)로 경기를 촬영해 5G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5대 엔터테인먼트 분야 '가상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의료·건축 등 전문 분야로 확대할 계획

가상현실은 소프트웨어, 콘텐츠뿐 아니라 센서,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을 집적해 게임, 제조, 의료, 국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대표적인 유망 신산업으로 꼽힌다. 세계 시장도 2016년 22억 달러에서 2025년 800억 달러 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구글, 페이스북, 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올해를 가상현실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가상·증강현실 생태계 구축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5년간(2016~2020년) 약 4050억 원(정부 2790억 원, 민간 12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가상현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은 ▶핵심 원천기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가상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혁신과 성장 생태계 조성 등으로 나뉜다.

먼저 가상·증강현실산업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초경량 디바이스 개발을 통해 착용감을 개선하고, 고시야·고해상도 지원 기술을 확보해 이용자의 몰입도를 높인다. 그동안 가상현실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돼온 어지러움, 피로감 등 이용자의 안전성 문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연구개발과 국제 표준 확보에 적극 나선다.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상현실 서비스 플랫폼, 게임 체험, 테마파크, 다면 상영, 교육·유통 등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선정해 최장 4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엔터테인먼트 분야 중심인 프로젝트를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전문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 기업 등 역량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가상현실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유망 가상현실 기업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는 가상현실 전문 펀드를 조성(2017년까지 400억 원 규모)하고, 가상현실을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산업에 포함시켜 활발한 연구개발 투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미디어 기업을 비롯해 문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업들이 모여 있는 상암동 일원을 가상현실 관련 기업 간 협업과 융합의 메카로 집중 육성한다. 누리꿈스퀘어에 창업 기업을 위한 입주공간과 제작 인프라뿐 아니라 정부의 연구개발 및 플래그십 프로젝트 성과물을 전시해 스타트업 등에 기술 이전 창구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즐기고, 초기 시장 수요도 창출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 주요 관광지, 한류 거점 등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가상현실 체험 시설과 콘텐츠를 구축할 계획이다. G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소비와 투자 등 민간 활력 제고 노력

4분기 정부·공공부문 재원 10조 원 이상 더 집행

©뉴시

정부는 신용카드 포인트의 사용비율 제한을 최대 100%까지 완화해 카드 포인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신상품을 연내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호열 | 위클리 공감 기자

● 정부와 공공부문이 내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 4분기에 10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집행과 투자에 나선다. 또한 민간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가을 여행주간에 전국 미개방 관광시설을 한시 개방하고 주요 관광시설에서 무료 내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10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4분기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와 투자, 수출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이 기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 보강 외에 10조 원 이상의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4분기 예정된 추경과 재정 보강 집행 잔여분 16조6000억 원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연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예산 3조2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추경 규모를 31조4000억 원에서 34조 원으로 2조6000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소와 경전철 등 해외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유망 신흥국 대상 3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도 조성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은 연내 5000억 원의 추가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 제고방안 마련
IMF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3.0% 전망

민간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방법 개선 및 활용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은 지난해 1330억 원, 올해 상반기 681억 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주요 카드사 전반으로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완화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가을 여행주간(10월 24일~11월 6일)에 전국 미개방 관광시설 40곳을 개방하고 1만3459곳의 관광시설은 무료 또는 할인 개방하기로 했다. 지역 관광객 면세 쇼핑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내국인 대상 제주도 지정면세점이 관광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1조4000억 원, 내년 15조6000억 원 규모인 신산업 투자가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TP)을 통해 이천~오산 고속도로(8000억 원) 사업 조기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10월 4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로 3.0%를 제시했다. 2015년 2.6%, 올해 2.7%(예상치) 성장률보다 높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0%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한 경기 하방 요인이 없었고 경제 상황을 잘 관리했다는 판단으로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부정적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G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신속 정확하게 현장 대응력 높인다

©동아DB

국민안전처는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확대·고도화하기로 했다.

김가영 | 위클리 공감 기자

● 정부가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최근 국민안전처는 '2016년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확대·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통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이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 국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확대·고도화사업은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재난안전·소방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해경 분야까지 포괄하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측 정보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상황 정보를 표준화하고, 이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상호 연계해 공동 활용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공동 활용하는 재난관리 자원에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의 보유 자원까지 확대해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상호 지원 요청할 수 있게 한다. 긴급구조기관인 소방, 해경, 산림, 경찰 헬기관제 정보 등을 연계해 재난 대응 공동작전을 수행하고, 소방상황센터와 전국 소방헬기 간 항공무선통신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공중작전 지휘 통제를 가능케 한다.

재난 시스템 단일화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올해 해경 분야 포함시켜 확대·고도화사업 추진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확대·고도화사업은 ▶전자지도 기반의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고도화 ▶재난관리 업무 지원 및 재난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확대 ▶재난관리 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확대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확대 ▶공공헬기 공동활용시스템 고도화 ▶재난영상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등이 6대 분야에 해당한다.

우선 전자지도 기반의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재난이 발생한 위치 및 전자지도 영향권 분석 등 주변 상황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재난관리 업무 지원 및 재난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확대한다. 유·도선과 연안 안전사고 정보 등 해경 분야를 확대하고, 안전신고 정보 분석 및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난안전통신망을 연계 활용하는 등 재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돕는다. 재난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노후화된 연계 방식을 최신식으로 전면 개편하며, 연계 정보도 현재 260종에서 300여 종으로 확대 추진한다.

재난관리 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재난 피해 응급복구와 수습에 필요한 자원을 바로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의 보유 자원(자재, 장비 등)을 추가 확대한다. 또한 음압병동, 특수시설 등 사회재난 분야를 추가해 이를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한다.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확대하고, 공공헬기 공동활용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재난 발생 시 소방장비를 적시에 투입하고, 소방, 해경, 산림, 경찰 등 유관기관 간 헬기관제시스템을 연계해 소방상황센터와 전국 소방헬기 간 소방항공무선통신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방 재난영상 암호화 등 활용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하고, 4개 시·도에서 17개 전국 시·도 표준 모바일 현장영상전송시스템을 구축해 연계 확대한다. G

2016 가을여행주간, 10월 24일~11월 6일

구석구석 숨겨진 대한민국 매력을 만난다

1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사진 제공·한국관광공사

● 사람은 자연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고 한다. 고된 업무와 일상에 쫓겨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정신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의미를 찾기 힘들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좋겠다. 어느새 길가의 가로수 나뭇잎들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줄 여행지를 물색하는 게 고민이라면 2016 가을여행주간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24일~11월 6일 가을여행주간에는 전국 각지의 숨겨진 여행지와 지역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각종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26개 지역 40여 곳의 미개방 관광지 개방
전국 300여 개 여행주간 프로그램 운영

이번 여행주간에는 '숨겨진 대한민국이 열립니다'라는 주제로 유적지, 문화시설, 공공시설, 생태보전지역 등 미개방 관광지를 개방한다. 지자체와 민간·유관기관의 협조로 전국 26개 지역 40여 곳의 미개방 관광지가 개방되며, 이 중에는 보존 문제 등을 이유로 일반에게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곳도 있으니 평소 관심을 가졌던 지역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경북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에서는 유교 관련 기록문화재 중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유교 목판을 공개한다. 또한 나로호가 발사됐던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 현장도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하며, 3·1만세운동 태극기가 비밀리에 제작됐던 대구 계성중학교 아담스관도 공개된다. 이와 함께 지리산 노고단 정상과 무등산 정상도 평소에는 개방되지 않았으나 여행주간에 맞춰 개방되며, 금강송 유전자원 보호구역과 인천 교동 민통선 철책선 지역, 전남 강진 화훼단지 등도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개방된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여행주간의 대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주민 사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관광두레 프로그램'도 전국 15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2016 올해의 관광도시인 충북 제천과 전북 무주, 경남 통영에서도 여행주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12개 지역에서 19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행주간에 맞춰 '국립공원주간'을 지정해 총 125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 속초 영금정 해안누리길 걷기 축제와 경기 이천 쌀문화축제, 충남 서천 한산소곡주축제 등 다양한 문화관광축제도 여행주간 동안 진행되며, 농촌체험마을과 어촌체험마을에서도 여행주간에 맞춰 할인행사를 연다. 이 밖에도 전국 지자체는 300여 개의 여행주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원 강릉 등 전통문화 육성지역에서는 '신사임당·허난설헌 문화 이야기 여행'처럼 지역 전통문화를 주제로 하는 여행주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여행주간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여행주간 중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제주도의 다양한 관광지를 대폭 할인받을 수 있으며, 1만 원으로 기차여행을 할 수 있는 '만 원의 행복' 철도여행 상품도 만들어졌다. 철도여행 상품은 탑승 날짜에 맞춰

이번 가을여행주간에 만날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들. 1 광주 무등산 정상. 2 경북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의 세계기록유산 유교 목판. 3 대구 수성못 유람선. 4 나로호가 발사되었던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 현장. 5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 6 부산 산복도로 옥상 달빛극장(이바구캠프).

선착순으로 사전 예약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국 83개 사찰에서도 여행주간 동안 1만 원으로 템플스테이를 이용할 수 있다.

여행주간 실시 이후 최다 업체 할인 참여
관광두레, 생태관광, 지역 축제, 이벤트 등

여행주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역 청년문화단체와 연계한 '오프닝 에디터'를 운영해 지역의 숨은 명소를 찾아내고, 잘 알려지지 않은 맛집과 나만 아는 사진명소 등을 추천한다.

아울러 조부모와 손자가 함께 사연을 응모하면 당첨자를 선정해 체험여행을 보내주는 '시니어 격대교육여행 이벤트',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연을 공모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벤트, 모집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지 정보 등 사전 정보를 주지 않고 진행하는 '블라인드 한옥 엠티', 부자가 함께 떠나고 싶은 여행 사연 공모를 통해 버스여행을 보내주는 이벤트 등도 여행주간에 진행된다.

이번 여행주간에는 전국 1만3583개 지점(10월 3일 기준)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제주도 렛츠런팜과 무주태권도원 등이 무료로 개방되며, 4대 고궁과 종묘, 국립생태원, 산음국립자연휴양림은 입장료를 50% 할인한다.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등 유원지도 최대 입장료 40%를 할인하고, 롯데렌터카 전국 지점에서는 최대 80% 할인을 제공한다. 여행비용 부담이 가장 큰 숙박 부문에서는 굿스테이(79곳)와 베니키아(52곳), 고택, 한화 리조트 등 전국 2087개의 숙박업소가 할인에 참여해 여행객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참했다. 호텔엔조이와 세일투나잇 등 온라인·모바일 전용 예약업체도 할인행사에 참여했으며,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CU 등 유통업계에서도 여행주간 동안 1원에서 3000원까지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가을여행주간에 대해 궁금한 점은 누리집(fall.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가을여행주간에 문체부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이 협업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할인행사를 마련했으니 국민들이 하루라도 꼭 휴가를 내 숨겨진 대한민국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G

2016 가을여행주간 주요 할인 행사

관광시설	• 4대 궁 및 종묘 50% 할인 •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경주월드, 이월드 등 유원시설 최대 40% 할인 • 제주도 렛츠런팜, 무주 태권도원 무료 개방
체험	• 83개 템플스테이 1만 원 할인 • 102개 농촌체험마을 최대 20% 할인 • 13개 창조관광체험 최대 40% 할인
교통	• 롯데렌터카 전국 170개 지점 최대 80% 할인
숙박	• 한화호텔&리조트, 호텔현대, 이랜드파크, 일성콘도&리조트 특가 판매 및 최대 70% 할인 • 호텔엔조이, 세일투나잇 할인 및 특전 제공 • 굿스테이 79개소, 베니키아 52개소 최대 20% 할인
쇼핑·유통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온라인) 최대 3000원 할인 • CU편의점 1000원 앱 할인
음식	• 대구 지역특색음식거리 97개소 참여 • 부산 돼지국밥골목, 의정부 부대찌개거리 등 지역별 음식테마거리 할인 제공

2016 가을여행주간 전국 17개 지역과 연계

내게 딱 맞춘 프로그램 골라볼까?

©한국관광공사

가을여행주간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뽑힌 대구에 가면 80년대 음악과 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도 만날 수 있다.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가을여행주간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서는 관광지와 특산물 등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여행주간에 맞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여행주간 최우수 프로그램으로는 대구시의 '상상 속의 대구', 부산시의 '영화 속 숨은 부산 보물찾기', 전라남도의 '남도 강길, 바다길, 철길여행' 등이 있으며, 이 밖에 경남, 대전, 광주, 인천, 경북, 울산, 충북 등에서도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대구·부산·전남, 전국 대표 최우수 프로그램 선정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즐길 거리 다양하게 마련돼

대구에서는 '상상 속의 대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너에게만 보여줄게'라는 주제로 특별 개방시설을 찾아가 스탬프를 찍는 투어와 문화공연 등이 진행되고, 'Healing in Daegu'라는 주제로 힐링 관광지 여행과 여성들만의 힐링여행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또한 '상생하는 대구여행'이라는 주제로 사과 따기 체험 등 사과 농가와 연계된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문의 053-803-6511

부산에서는 '영화 속 숨은 부산 보물찾기'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부산 무비로드 헌팅투어'라는 주제로 영화 속 부산과 관련된 시설 및 촬영지 탐방, 보물찾기 미션 수행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영화 속 부산 에코랠리'라는 주제로 10월 29일 삼성 전기차를 활용한 친환경 랠리 대회도 개최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 체험 등이 마련돼 있고, 어묵과 지역 소주를 활용한 먹거리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문의 051-888-5186

전남 영산강과 강진만 일원에서는 '남도 강길, 바다길, 철길여행'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우선, '영산강 따라 배 타고 생태탐방'이라는 주제로 영산강 옛길의 생태탐사, 황포돛배 선상공연 등이 운영되고, '전통한옥과 국화 속에서 휴(休)여행'이라는 주제로 한옥 민박체험, 국화꽃 생태체험 등이 마련돼 있다. 또한 강진만 갈대숲 생태탐방로에서는 강진만 이야기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가 준비돼 있으며, 이 밖에 노래와 풍경이 있는 강진만 갈대숲 음악여행, 철도마을의 철도문화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문의 061-286-5243

여행주간의 대표 우수 프로그램에는 경남, 대전, 광주, 인천, 경북, 울산, 충북 등의 프로그램이 꼽혔다. 경남 창원, 밀양, 하동에서는 '경남으로 마실 가자'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창원 상상길, 창동 예술촌, 청춘 바보몰 등 체험거리가 가득한 프로그램과 밀양시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열리는 얼음골 사과축제, 세계 국수 페스티벌 등 먹거리가 풍성한 프로그램, 하동 지리산 회남재 일원에서 진행하는 지리산 회남재 숲길 걷기대회, 청학동 훈장님 예절수업 등 신나는 즐길 거리가 마련돼 있다. 문의 055-211-4614

대전에서는 '대전, 과학과 예술의 상상 발자취'라는 주제로 대청호 전망대, 대청호수길 등 주변 관광명소들을 예술가와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 대덕특구 주변 연구소와 연계해 과학자와 함께하는 사이언스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의 042-270-3972

광주에서는 '홍겨워라 가을 풍류 나들이'라는 주제로 가을 호수생태원 풍류 남도 나들이, 숨겨진 명소인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 남도 전통음식 문화 체험 등이 마련돼 있다. 문의 062-613-3624

인천에서는 '올가을 인천은 내가 접수한다, 인천 여행상륙작전~!'이라는 주제로 인천의 주요 5대 거점(인천 개항장, 강화, 송도, 경

인 아라뱃길, 인천섬)을 방문하고 스탬프를 찍는 스탬프 투어, 누리소통망(SNS) 인증샷 이벤트 등이 펼쳐진다. 문의 032-899-7453

스탬프 투어와 SNS 인증샷 등 이벤트도 준비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다수

경북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안동 궁궐 유교문화 체험'이라는 주제로 다식 만들기, 국화차 체험 등 일일 프로그램과 유교 책판 공개, 목판 인출(목판에 새겨진 글씨나 그림을 찍어냄) 체험, 안동 귀신파티(귀신탈 만들기), 안동 소주파티(안동 소주 칵테일 시음) 등의 행사가 열린다. 문의 054-840-6392

울산에서는 '영남 알프스, 별 헤는 밤'이라는 주제로 영화 상영, 음악 공연 등 가을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의 052-229-3855. 충북에서는 '충북 공감 여행'이라는 테마로 사랑, 힐링, 문화, 사색 등의 네 가지 테마로 충북 지역의 다양한 여행 코스를 운영한다. 문의 043-220-4003

전북, 강원,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서울 등에서도 각각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 익산과 군산에서는 '전북으로 떠나는 맛있는 여행'이라는 테마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익산시에서는 맛있는 골목여행을 주제로 문화예술의 거리 버스킹과 플리마켓, 맛있는 골목 브로슈어 제작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군산시에서는 '군산으로 떠나는 맛길 멋길'이라는 주제로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추억의 먹거리 체험, 관광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길거리 공연 등이 진행된다. 문의 063-280-2709

강원 평창, 강릉, 정선 등지에서는 '미리 가보는 동계올림픽 개최지 3색 로드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최 도시별 체험 및 투어 프로그램(1박 2일)과 동계올림픽 시설 견학 및 답사, 지역별 관광로드 투어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문의 033-249-3367

경기에서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탄도 바닷길, 영흥 에너지 파크 등을 중심으로 '섬으로 떠나는 에너지과학 체험여행'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의 031-8008-3331

세종시에서는 도심의 우수 건축물 투어와 농촌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여행주간 맞춤 시티투어 '아름다운 세종 건축 투어'가 운영된다. 문의 044-300-3445. 충남에서는 서천군 등을 중심으로 1500년의 맛과 향이 일품인 한산 소곡주와 함께하는 갈대여행이 마련돼 있다. 문의 041-635-3886

제주에서는 사계리, 김녕리, 성산리 등 제주 3개 마을에서 지오힐링 페스티벌, 지질 트레일 투어, 마을 문화축제와 연계한 지오문화축제, 도내 트레킹 코스와 연계한 스탬프 랠리 투어 등이 운영된다. 문의 064-740-6071

서울에서는 신촌 연세로 일원에서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의상·음식 페스티벌, 세계 전통의상 패션쇼, 세계 전통문화 체험, 세계 음식 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2-330-1672 G

2016 가을여행주간 대표 프로그램(광역시·도별 17개)

최우수 ★★★

- 대구 | 상상 속의 대구
- 부산 | 영화 속 숨은 부산 보물찾기
- 전남 | 남도 강길, 바다길, 철길여행

우수 ★★☆

- 경남 | 경남으로 마실 가자
- 대전 | 대전, 과학과 예술의 상상 발자취
- 광주 | 흥겨워라 가을 풍류 나들이
- 인천 | 올가을 인천은 내가 접수한다, 인천 여행상륙작전
- 경북 | 가족과 함께하는 안동 궁궐 유교문화 체험
- 울산 | 영남 알프스, 별 헤는 밤
- 충북 | 충북 공감 여행

보통 ★☆☆

- 전북 | 전북으로 떠나는 맛있는 여행
- 강원 | 미리 가보는 동계올림픽 개최지 3색 로드여행
- 경기 | 섬으로 떠나는 에너지과학 체험여행
- 세종 | 아름다운 세종 건축 투어
- 충남 | 1500년의 맛과 향, 한산 소곡주와 함께하는 갈대여행
- 제주 | 지오힐링 페스티벌
- 서울 |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의상·음식 페스티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고즈넉한 가을밤과 함께 문화재 야행(夜行)

오색 달빛 벗삼아 역사 속을 거닐다

1

2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사진 제공·문화재청

● 문화재 야행(夜行)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올해 처음 선보인 문화재 야행은 지역의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콘텐츠(박물관, 미술관 등)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서울 정동야행'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강릉, 청주 등 10개 시·도에서 8월까지 서로 다른 일정으로 야간에 첫선을 보인 이 사업은 총 65만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했을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문화재 야행은 올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된다. 이미 마무리된 '전주야행 천년벗담(9월 30~10월 1일)'과 '피란수도 부산야행(9월 30~10월 1일)', '부여 사비야행(10월 7~8일)'과 함께 '경주 천년야행(10월 21~23일)', '서울 정동야행(10월 28~29일)' 등이 차례로 열리면서 가을밤의 정취를 더할 예정이다.

상반기 10차례 진행… 총 65만 명 참여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문화재 야행은 야경(夜景, 밤에 보는 문화재), 야로(夜路, 밤에 걷는 거리), 야사(夜史, 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화(夜畵, 밤에 보는 그림), 야설(夜說, 밤에 감상하는 공연), 야식(夜食, 밤에 즐기는 음식), 야숙(夜宿, 문화재에서의 하룻밤) 등 7개 주제로 진행된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무형문화재 공연, 전통놀이, 역사 체험, 전통 음식, 전통문화 숙박 체험 등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경험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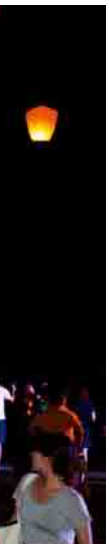
문화재 야행을 통해 얻은 성과는 다양하다. 먼저, 문화재 시설 등 166여 곳을 야간에 개방하면서 문화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순천향교 대성전(순천) 등 7개 문화재는 처음으로 야간에 대중에게 공개해 의미를 더했다. 7개 문화재란 미국대사관저 영빈관, 성가수녀원(서울 중구), 임당동 성당(강릉), 신흥동 일본식 가옥 내부(군산), 순천향교 대성전(순천), 계산성당 역사문화관과 제일교회 역사관(대구) 등이다.

또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야간 개방의 매력이 전해지면서 행사장과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등 지역 곳곳이 늦은 밤까지 발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등 인기를 얻었다. 이 덕분에 숙박과 식사를 하려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경제 유발 효과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문화재 야행은 낮에 주로 관람하던 문화유산을 밤에도 즐길 수 있도록 색다른 콘텐츠로 구성해 낮과 전혀 다른 문화재 풍경을 관광객에게 보여주고,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체류형 관광객 형성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월 21~23일 진행될 '경주 천년야행'은 992년간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고분, 궁궐터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와 설화 등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번 경주 문화재 야행에서 진행되는 '야화'에서는 동부 사적지와 대릉원 고분군을 활용한 영상쇼와 문화재 옛 사진 및 야경 사진 150점을 감상할 수 있다. '야로'에서는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문화재 야행답사를 해볼 수 있고, '야사'에서는 쪽샘유적발굴관에서 고분 발굴 현장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경주의 '야설'은 관광객과 함께하는 신라 고취대 퍼레이드와 선덕여왕 첨성대 행차극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고, '야식'에서는 경주의 야식 시장 탐방과 특별 할인행사, 거리음악회, 공예 체



1 순천야행의 가야금 연주 공연.
2 경주야행의 풍등 날리기 행사.
3 전주야행이 진행된 전동성당.
4 부여야행의 정림사지 달빛 음악회.
5 정동야행의 덕수궁 고궁음악회.
6 강릉야행의 달빛 체험.
7 청주야행의 무형문화재 시연.

© 청주

험 등이 준비돼 있다. '야숙'은 신라 왕과의 하룻밤이라는 테마로 전통 한옥에서 숙박을 하게 된다.

경주 천년야행과 서울 정동야행
역사문화콘텐츠를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10월 28~29일 이뤄질 '서울 정동야행'은 지붕 없는 박물관, 근대문화유산의 보고인 정동 곳곳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정동 야행에서는 조선시대 왕이 머물던 덕수궁을 비롯해 근대 서양문화가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던 곳으로 지금도 각국의 외교공관을 비롯해 이화학당, 배재학당, 정동제일교회 등이 100여 년의 세월을 버티고 있는 생생한 역사 현장을 둘러볼 수 있다.

정동의 '야화'는 덕수궁에서 고궁음악회와 전시회 등을 감상할 수 있게 마련되며, '야로'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시작이자 중심인 정동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명소를 선정해 정동 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 도보 투어 프로그램으로 준비된다. 또한 '야사'는 1900년대 덕수궁에서 덜덜거리는 전기설비를 통해 백열전구를 밝히던 '덜덜불'에 관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며, '야설'은 정동 마당극, 길거리 퍼포먼스를 비롯해 덕수궁 돌담길에서 락, 포크, 아카펠라 등 다양한 음악 및 마술공연 등이 진행된다.

정동의 '야경'은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재미있고 오색찬란한 정동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야식'은 길거리 푸드트럭, 한 컵마트 등을 통해 차와 간단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를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발전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민 누구나 문화융성과 문화로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제품력·가성비·한국문화체험 반한 중국인 관광객

“코리아 세일 페스타, 팅하오!”

©뉴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진행된 10월 첫 주말에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방한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를 해소했다.

김건희 | 위클리 공감 기자

●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감소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기우였다.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총 1148만 명(25일 기준·누계)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는 2014년 같은 기간보다 21.7% 늘어난 수치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역시 중국인 관광객이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561만 명으로 2014년보다 36.1% 늘었고, 홍콩과 대만 등 중국을 제외한 중화권 국가에서 온 관광객은 107만 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23.7% 증가했다. 아프리카·중동 국가에서 온 관광객도 171만 명으로 2014년보다 21.5% 늘었다.

이런 현상은 10월 들어서도 계속됐다. 중국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국경절(10월 1~7일) 연휴 동안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한국을 찾았다. 특히 올해는 국경절이 국내 최대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과 겹쳐 국내 유통·관광업계가 모처럼 만에 특수를 누렸다. 중국 국가여유국 직속 연구기관인 여유연구원과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립(Ctrip·携程)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경절 연휴에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인기 여행지 순위에서 한국이 가장 상위에 올랐다. 태국과 일본이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쇼핑, 한류 마니아, 건강 체험 등 특색 있는 여행에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높고 항공편 이동과 비자 발급이 편리한 것이 한국이 중국인 관광객을 흡인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중국 국경절 연휴 동안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수를 총 24만8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경절 연휴에 맞춰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5만7000명을 기록했던 중국인 관광객은 2014년 16만3500명이 찾았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질환)가 발병한 2015년에도 전년보다 24.2% 증가한 20만3000명이 방문했다.

1~8월 중국인 관광객 561만 명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1위
국경절 맞아 대거 입국해 유통·관광업계 매출 최대 50% 증가

중국인 관광객의 대규모 방한으로 국내 유통·관광업계는 국경절과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특수를 누리며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현대백화점의 중국인 관광객 대상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4% 증가했다. 롯데백화점(본점 기준)은 38%, 신세계백화점은 10.5% 증가했다.

면세점도 중국인 관광객들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롯데면세

중국인 관광객 방한 현황

2016년 1~8월(누계)까지 **561**만 명 방한
2014년 대비 **36.1%** 증가

코리아 세일 페스타 첫 주말 유통업계 매출 현황(전년 동기 대비)

현대백화점	50.4% 증가(9.29~10.3)
롯데백화점	38% 증가(9.29~10.3)
신세계백화점	10.5% 증가(9.29~10.3)
롯데면세점	40% 증가(10.1~10.2)
신라면세점	10% 증가(9.29~10.2)
HDC신라면세점	55% 증가(9.29~10.2, 전월 동기 대비)

자료 : 업체 종합

점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대상 매출이 지난해 연휴 첫 이틀보다 40%가량(월드타워점 제외) 급증했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나흘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0%가량 상승했고, HDC신라면세점 용산점은 이 기간 동안 매출이 지난달 동기(8월 30일~9월 2일) 대비 55%가량 증가했다.

현대백화점 이경훈 대리는 "9월 29일부터 시작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진행된 첫 주말 동안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백화점과 면세점 등 유통업계의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국경절 연휴 이후에도 중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외국인 특별할인기간'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품목은 쇼핑, 숙박, 교통, 식음료, 문화, 엔터테인먼트, 뷰티·건강, 편의점 등이다.

교통편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중국과 일본인 관광객 대상으로 '1+1 할인 서비스'를, 제주항공은 '최대 95% 특가 제공'을, 고속버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승차표 반값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전용 교통관광카드(K투어카드)를 이용하면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는 상품을 구입할 경우 할인 및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수하물을 배송·보관해주는 '핸즈프리 서비스' 이벤트도 진행돼 공항·호텔·쇼핑 거점 간 수하물을 배송·보관하는 이용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외국인을 위한 지방 관광 상품인 K트래블버스(1박 2일 지방 버스자유여행 상품)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지역은 대구, 강원, 전남,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주)과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된 무주와 제천이다.

유통·관광업계가 마련한 할인 혜택도 푸짐하다. 현대아이파크몰과 신세계백화점은 각각 10~50% 할인을, SM면세점은 최대 50% 세일을 진행한다. 에버랜드와 한국의집(공연, 체험, 한식)도 각각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쁘띠프랑스는 25% 할인한다. K라이브(K팝 홀로그램)와 넌버벌 공연 '점프(JUMP)'는 반값 입장이 가능하고, 국립극장은 공연 관람료를 20% 할인한다.

10월 동안 외국인 할인 주간… 숙박·교통·유통·관광 50% 할인
문체부, 올해 연말까지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에 박차

문체부는 국경절을 계기로 대거 방한한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이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 한 해 외국인 관광객 1650만 명, 중국인 관광객 8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주요 시장별로 맞춤형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류와 뷰티(미용) 등 개별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마케팅을 전개하고, 중국 내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파워유저인 왕홍(網紅)을 초청해 현지 온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11월에는 대만과 홍콩에서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한다.

아프리카·중동에서 오는 관광객을 겨냥한 '고부가 관광상품 30선'도 선보인다. 부유층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방한 확대 프로모션인 '디스커버 코리아(Discover Korea)'를 진행하고, 일본인 관광객을 위해서는 20, 30대의 소비 흐름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선정해 젊은 층의 방한을 유도할 계획이다. G

한국에서 관광, 음식, 쇼핑 만끽 '코리아 세일 페스타' 반갑지 아니한가

©동아DB

1

©뉴시스

2

1 9월 17일 서울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나들이에 나선 학생과 외국 관광객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 지난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궐담 넘어 찾아온 전통과 사대부가의 음식축제'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전통음식 상차림 부스를 체험하고 있다.

이대현 |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 1786년,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난다. 그 여행은 그의 삶과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당시로서는 모험인 해외 장기 여행을 감행한 동기는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남국에 대한 동경, 답답한 현실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예술정신의 회복이었다.

그는 〈이탈리아 기행〉에서 이 여행의 중요한 의도는 "육체적·도덕적 폐해를 치유하는 것", "참된 예술에 대한 뜨거운 갈증을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는 상당히, 하나는 완전히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괴테에게 이탈리아 여행은 '익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인생의 활력을 위한 체험이었다.

괴테는 이탈리아의 자연과 사회, 예술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행복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몇 줄의 글을 남겨 생생하게 보존하고, 아울러 즐거웠던 일을 사실대로 알려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 길가에 있는 바위 하나를 보고도 자신의 지식과 사유를 바탕으로 긴 글을 썼다.

괴테의 삶과 문학에 큰 영향 끼친 '이탈리아 여행'

해외여행 관광, 음식, 쇼핑 세 가지는 필수

그렇다고 그의 행로가 별나거나 마냥 심각하고 진지하기만 했느냐 하면 결코 아니었다. 마음 편하고 여유롭게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유명한 곳 구경하고, 맛있는 것 먹고, 쉬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아무리 대문호 괴테라도 그것이 즐겁지 않았다면 여행이 아니다. 로마에서의 어느 하루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늘은 쾌청하고 태양은 따사로웠다. 나는 티슈바인과 함께 성베드로 광장으로 가서 우선 이리저리 거닐었다. 무더워지면 우리 둘에게 넉넉한 그늘을 선사하는 커다란 오벨리스크의 그림자 밑에서 서성이면서 근처에서 포도를 사서 먹었다. 그런 다음 시스티나성당으로 들어갔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과 갖가지 천장화들이 경탄을 자아냈다. 바라보면서 놀랄 뿐이었다.

그림들을 보고 또 본 후에 성베드로성당으로 갔다. 성당은 맑은 하늘의 아름답기 그지없는 빛을 받으며 밝고 환한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향유자로서 그 위대함, 그 화려함을 즐겼다. 아는 척

하는 취향으로 인해 자신을 오도하는 일 없이 날카로운 비판을 모두 억제했다. 그저 즐거움을 즐겼을 뿐이다.

성당 지붕 위로 올라갔다. 잘 설계된 도시가 축소판으로 조감되었다. 집과 창고, 분수, 교회들과 커다란 사원 하나, 이 모든 것이 공중에 떠 있는 듯했고 그 사이로 아름다운 산책길이 이어져 있었다. 눈앞에는 로마 시가지가 언덕의 궁전들과 원형 지붕들과 함께 넓게 펼쳐져 있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마음에 아로새긴 후, 내려와 이웃 식당에서 즐겁고도 조촐한 식사를 마친 후, 체칠리아성당을 향해 떠났다."

우리가 지금 이탈리아를 여행해도 찾아가는 곳, 하는 행동과 별로 다르지 않다. 어느 시대, 어느 누구, 어느 곳의 여행도 이럴 것이다. 만약 여행에 이것 말고 다른 동기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일이다.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 넣어 '여행의 3대 즐거움'이라고 부른다. 특히 해외여행에서. 바로 쇼핑이다.

'관광, 음식, 쇼핑' 이 세 가지는 해외여행에서 꼭 해야 한다. 우리와는 다른 역사와 문화와 환경을 가진 나라의 유적지나 명소, 아름다운 자연을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행의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하다. 신기하거나 이색적이어서가 아니라 이국의 유물과 유적, 풍광은 마음과 생각과 눈을 넓혀주기 때문이다. 한곳에 머무르면서 쉬는 휴양이 진정한 여행이 아닌 이유다.

무작정, 아무 준비 없이, 아니면 유명함만 믿고 가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사전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가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이니까 말이다. 굳이 남들이 가는 곳에 가서 기념사진이나 찍는 것보다 나만이 가보고 싶은 곳이면 더 좋다. 여기에 하나 더. 그 나라의 문화예술작품 한 편쯤 감상하면 금상첨화. 전통이든 대중이든, 그림도 좋고 연극이나 춤, 음악도 좋다. 그 나라 언어를 잘 몰라도 괜찮다. 느낌만으로 충분하니까.

해외여행 가면서 우리 음식을 잔뜩 가지고 가거나, 어느 곳에서든 하루 한 끼는 우리 음식을 먹어야 속이 편하다면서 물어물어 한국 식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음식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여행의 3분의 1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행위다. 그 나라의 일상을 경험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음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역사와 자연, 문화와 정신, 풍습의 산물이다. 최소한의 위생만 보장된다면 그곳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을 가장 서민적인 곳, 전통시장이나 동네 자그마한 식당에서 먹어보는 것도 여행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것이다.

55개 예술문화축제와 함께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외국인 관광 프로그램 연계 세일 진행

쇼핑도 빼놓을 수 없다. 해외여행에서의 쇼핑 하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명품'이란 선입견이 남아 있다. 지금 중국인 여행객들이 그렇듯이 그것은 품격 있는 여행문화로 가는 일종의 '통과의례'다. 자기 나라에 그만큼 유명하고 좋은 제품이 없거나 살 수 없던 때의 모습이니까. 그러나 여행에서의 쇼핑은 면세점에서 명품을 사는 것만이 아니다. 역사와 문화와 삶이 배어 있는 일상용품, 작고 소박하고 비싸지 않은 기념품을 사는 것이야말로 여행의 추억과 의미를 오래 간직하게 해줄 것이다.

여행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하느냐고 물으면 "똑같다"고 말해준다. 개인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하나라도 빼면 절름발이 여행이다. 관광만 있고 음식이 없으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듯이 흥미가 떨어지고 지친다. 관광만 있고 쇼핑이 없으면 자기만족과 추억이 없다. 쇼핑과 음식만 있고 관광이 없으면 여행이 아니다. 여행하기 좋은, 가보고 싶은 나라도 결국 이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9월 29일 시작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한창이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처럼 단순히 물건만 싸게 파는 것도, 홍콩의 '쇼핑 페스티벌'처럼 물건과 음식만 있는 '시장'도 아니다. 지난해 미국을 벤치마킹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달리 외국인 대상 관광 프로그램에 음식과 제조업체와 전통시장까지 대거 참여한 할인 쇼핑, 여기에 지역별 55개의 다양한 문화예술축제까지 어우러지고 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들로서는 네 가지 즐거움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로서는 내수 진작과 한류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다. 그러니 어찌 그 뜨거운 열기가 반갑지 않을 수 있겠는가. G

| 지상강좌 | **이금룡** 코글로닷컴 대표·前 옥션 대표

“미래에 용기 있게 도전하려면 문·사·철로 나만의 철학 다지세요”

©청년희망재단

이금룡 코글로닷컴 대표는 9월 22일 청년희망재단이 마련한 기업 CEO 특강에서 청년들이 미래의 자신에게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건희 | 위클리 공감 기자

● “소설가 최인훈이 소설 〈광장〉을 집필할 당시, 그의 나이 스물넷이었습니다.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이 참고서 〈수학의 정석〉을 발간한 나이는 스물아홉이었죠. 홍 이사장이 말하기를, ‘젊었을 때 책을 집필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20대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9월 22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6층 청년희망재단 본부 대강당. ‘미래의 나에게 도전하자’를 주제로 강단에 오른 주인공은 ‘옥션’ 신화를 쓴 이금룡 전 옥션 대표였다. 현재 코글로닷컴 대표를 맡고 있다. 1998년 4월 국내 최초 인터넷 경매 사이트로 시작한 오픈마켓 옥션은 ‘즉시 구매’, ‘고정가 판매’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며 국내 대표 온라인 마켓으로 성장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옥션을 이끌었던 이 대표는 네이버의 탄생 비화를 서두로 말문을 열었다.

“검색포털 ‘네이버’는 삼성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고안한 아이템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아이템은 사업화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직원들은 회사를 나와 창업을 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으로 발돋움했죠. 이 얘기를 통해 ‘도전하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청년들이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합니다. 고속도로가 옆에 있는데 샛길로만 가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업은 씨앗… 회사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야
영업과 학습은 성공적인 사업가·직장인으로 이끌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거나 새롭게 개척하는 건 어렵다. 그것이 창업이 됐든, 벤처기업 입사가 됐든 ‘맨 땅에 헤딩’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다가올 미래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 척박한 땅도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는 1977년 5월 상업은행에 입사해 우수한 성적으로 연수원을 졸업했어요. 유능한 직원만 발령받는다는 국제부에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근무해보니까 회사생활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종합상사로 이직했어요. 당시 그 회사에 수출부가 있었는데, 20년 넘게 근무했더니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더군요. 고민도 하지 않고 당시 벤처기업이던 옥션으로 옮겼습니다. 돌이켜보면 벤처기업에서 실력을 연마한 것이 지금까지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사업가를 꿈꾸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과거보다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 것만은 분명하다. 기회도, 시장도, 사람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회사를 크게 차릴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직 기업가로서 이 대표는 “사업은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한다.

“사업은 씨앗과 같습니다. 수박이 아무리 커도 그 안에 담긴 씨앗은 작아요. 그런데 그 씨앗에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열매의 원천이 씨앗인 거죠. 사업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우는 겁니다.”

이 대표는 예비사업가를 꿈꾼다면, 혹은 직장인으로서 역량을 키우고 싶다면 두 가지의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는 고객을 만나는 일, 영업이다.

“제 경험에 비춰볼 때 사업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대부분 고객을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업가는 자신의 물건을 파는 것이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고객의 이상을 실현하는 사람이 사업가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좋아하는지, 만족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둘째 요소는 공부가 아닌 ‘학습’이다.

“제4차 산업혁명 핵심은 인공지능(AI)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기계학습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학습'인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공부'입니다. 공부는 내가 해야 할 대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스스로 부족한 걸 채우는 학습은 범위가 없어요. 부족한 걸 스스로 채워서 하는 것만큼 사업가와 직장인에게 좋은 자세는 없습니다."

사업가 혹은 직장인으로서 경험해봐야 할 업무와 취해야 할 자세를 배웠다면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태도도 알아둬야 한다. 이 대표가 말하는 사업가로서 최악의 태도는 고객이 원하지 않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버리려면 고객을 만나 그들의 욕망과 패턴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사업가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인도 고객사나 다니는 회사(상사나 동료)의 요구사항을 알고 실현해야 '일 잘한다'는 평을 들을 수 있다. 회사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시간이 하나둘 쌓이면 직원의 실력도 차곡차곡 쌓인다. 여기서 잠깐. 회사가 주는 일을 묵묵하게 하면 어느 순간 실력이 저절로 쌓일까. 실력을 쌓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옥션 경영을 맡고 있을 때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와 '음반을 홍보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였습니다. 오픈마켓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손을 잡고 신인가수를 홍보한다는 발상은 매우 신선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만의 철학이 확고하기 때문이에요. 일을 하는 데 있어 자신만의 철학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철학 갖고 싶다면 문학·역사·철학서 탐독해야
20대 때 '자신만의 헌법' 만들면 삶의 지표 찾을 수 있어

철학, 20대에게 다소 어려운 주문이 아닐까. 더욱이 철학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닌데 말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20대 때부터 철학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세대는 목적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졸업하면 취업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은퇴할 무렵, 상황이 달라지더군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가서 고민하면 늦으니 지금부터 내일이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자신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의 말대로 이런 자세가 체화되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자신이 가야 할 지표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방법은 뭘까. 이 대표가 제안하는 방법은 '문·사·철'을 탐독하는 것이다.

"문학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커피브랜드 스타벅스는 브랜드명을 소설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1등 항해사가 좋아하던 커피의 이름에서 따왔어요. 브랜드에 이야기를 심기 위해 스토리텔링 기법을 차용한 거죠. 고전은 모티프를 담고 있어 기업이 제품명이나 브랜드명을 지을 때 참고하기 좋아요. 만약 스타(Star)+벅스(Bucks)로 단순히 단어를 조합해 브랜드를 론칭했다면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흔히들 역사는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철학은 비판하기 위해 배운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철학을 통해 청년들이 질문하고(소크라테스), 의심하며(데카르트), 비판하고(칸트), 나만의 인생을 사는(니체)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인생에서 의사를 결정할 때 주체는 '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참고용일 뿐이죠. 내가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걸 안다면 미래의 나에게 도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G

이금룡 코글로닷컴 대표의 기업론

"이해의 폭을 넓히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다"
➡ 벤처기업은 대기업보다 조직이 유연해 신사업을 잘 찾는다.

"사업은 씨앗이다. 씨앗에 담긴 잠재력에 주목하라"
➡ 사업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우는 것이다.

"영업을 해봐야 일을 잘할 수 있다"
➡ 고객을 만나는 것이 시장을 파악하는 지름길이다.

"브랜드명을 지을 땐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라"
➡ 고전에서 브랜드명을 따오면 스토리가 절로 따라 온다.

"고객이 원하지 않는 물건이라면 팔지 말아야 한다"
➡ 사업가는 고객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사람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고대 그리스 과학기술 특별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스스로 술을 따라주는 기능성 로봇인 '필론의 자동 하인'을 관람하고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고대 그리스 과학기술 특별展'

최초의 자판기… 자동 신전의 문… 그리스 발명품 기발하네요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2500여 년 전에 등장한 성수(聖水) 자동 판매기. 그리스 신전 밖에 설치돼 동전을 항아리에 넣으면 자동으로 일정량의 성수가 나오는 인류 최초의 자동판매기다. 항아리 입구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관을 따라 시소처럼 생긴 접시 위에 떨어진다. 동전 무게에 의해 접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고깔 모양의 밸브를 연다. 항아리 밖으로 연결된 수도꼭지에서는 성수가 흘러나온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고대 그리스의 성직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과학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과학자들은 신비로운 발명품을 고안해 환영 효과를 만들어냈다. 신자들에게 마치 기적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주 먼 옛날의 과학기술 원리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다. 대전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발명품을 보여주는 '고대 그리스 과학기술 특별전'을 내년 1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그리스의 고대그리스기술박물관이 복원해 소장하고 있는 기원전 6세기부터 서기 1세기까지의 고대 그리스 발명품 54점을 아시아 최초로 소개하는 것이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술을 따라주는 '필론의 자동하인'은 현대의 휴먼로봇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르키메데스가 고안한 주행거리계는 오늘날까지도 자동차에 그 알고리즘이 적용될 만큼 톱니바퀴의 모양이 정교하다. 그리스인들이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계산하기 위해 만든 세계 최초의 천체용 기계식 컴퓨터 '안티키테라 계산기'와 제단에 재물을 바치면 자동으로 열리는 '신전의 문' 등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밖에도 '플라톤의 알람시계', '피타고라스의 컵', '자동극장' 등 고대 그리스의 발달된 과학기술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매우 흥미롭다. 발명품들은 내부 부품을 볼 수 있

인류 최초의 자판기
성수 자동 판매기

항아리 안에 동전을 넣으면 물이 흘러나온다. 동전 무게에 의해 접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밸브를 여는 원리다. 고대 그리스 성직자들은 신자들에게 마치 기적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발명품을 의뢰했다. 인류 최초의 자판기로 알려진다.

택시 미터기의 시초
주행거리계

아르키메데스의 발명품이다. 수레바퀴 중심에 있는 차축 막대가 상자 안에 있는 톱니바퀴로 움직임을 전달하며 상자 외부 윗면에 있는 눈금 매긴 원형판은 차축과 연결돼 이동거리를 표시한다. 주행거리계의 알고리즘은 오늘날에도 자동차에 활용된다.

제단의 벨소리
회전하며 지저귀는 새

신자들이 사원에 입장할 때 새 소리가 나도록 한 제단이다. 제단 밖에 있는 손잡이를 돌리면 그 축에 연결된 새 모형이 회전하고 축에 감긴 줄에 매달린 용기가 내려가면서 물에 잠긴다. 용기 안에 있던 공기가 파이프를 통해 빠져나갈 때 새가 지저귀는 듯한 소리가 만들어진다.

ⓒ국립중앙과학관

도록 한쪽 면을 드러내는 등의 모습으로 전시돼 있어 작동 원리를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찾은 발명품들은 그간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것들로 구성됐다. 그러나 생활, 산업, 의학뿐 아니라 예술, 체육, 음악, 군사, 종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과학관은 "발명품 속 볼트, 너트, 톱니바퀴, 도르래, 피스톤, 실린더, 자동장치 등은 고대 그리스의 과학기술이 오늘날 현대 과학기술의 핵심기술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기원전 6세기~서기 1세기 과학기술 직접 체험
중학생들 큐레이터로 나서 눈높이 해설

전시는 총 3개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있다. 1부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문명에 빠지다'는 본전시의 도입부로서 그리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개를 영상과 곁들여 보여준다. 2부 '고대 그리스 과학기술, 현재를 만들다'에서는 발명품 실물을 관람하고 전시 설명과 함께 그 속에 숨은 과학 원리가 그래픽 패널과 동영상으로 제공된다. 3부 '고대 그리스 과학을 체험하다'는 발명품들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관람객이 직접 만질 수 있는 인터랙티브 전시물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회전하며 지저귀는 새 모형의 톱니바퀴를 돌려 소리를 내고, 그리스 소방펌프를 직접 작동시켜볼 수도 있다. 이번 전시에는 특별한 해설사도 등장한다. 대덕중학교 학생 9명이 전문 큐레이터 대신 '학생 명예해설사'로 나선다. 학생들은 직접 작성한 원고로 고대 과학기술의 작동 원리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준다.

양성광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고대 그리스가 철학 및 예술 분야에 기여한 사실은 매우 잘 알려져 있고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과학 분야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 전시는 현대 과학기술과 놀랍게도 유사한 그리스 과학기술 발명품을 통해 인류 초기 과학을 이해하고 그 속에 숨은 과학 법칙과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G

고대 그리스 과학기술 특별전

장 소 국립중앙과학관(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1) 특설전시관
기 간 2017년 1월 30일까지
관람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50분(매주 월요일 휴관)
입 장 료 학생 1000원, 성인 2000원(단체관람은 50% 할인)
문 의 042-601-8063, www.science.go.kr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재개관

‘그리운 내 고향’… 벽화로 다시 만나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오두산 통일전망대 재개관 행사에서 첫선을 보인 벽화 ‘그리운 내 고향(위)’과 ‘아리랑’.

김건희 | 위클리 공감 기자

● 북녘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의 마음이 모여 예술작품으로 탄생했다.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와 이산가족 4000여 명이 그린 북녘 고향 그림으로 제작한 벽화 ‘그리운 내 고향’과 ‘아리랑’이 9월 13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재개관 행사에서 첫선을 보였다. 1층 로비와 2층 상설전시관에 전시된 두 벽화는 국민의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족 화합을 기원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서양 화가인 서세옥과 김병기의 작품도 특별전으로 전시되고 있다. 이름하여 남북 분단의 아픔과 통일 염원을 예술로 승화한 특별전 ‘경계와 접점 : 시대와의 대화’. 오두산 통일전망대 측은 북한 출신인 김병기 화백과 독립운동가 후손인 서세옥 화백의 삶과 작품이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잘 표현한다고 보고, 이들을 재개관 기념 기획전 초대화가로 선정했다. 초대전으로 기획된 이 전시는 현대미술이 싹튼 여명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왕성하게 활동해온 두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다.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등을 설명한 전시도 마련됐다. 갈등과 협력의 ‘남북관계사’,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노력’이 그간의 역사와 정부의 정책 등을 설명한다. 북한 고향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상관 ‘기억을 찾아서’는 관람객이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갖게끔 도와준다.

다시 문을 연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의 역할도 한다. 지하 1층에 어린이체험관을 마련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생생한 체험형 통일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문학작품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이해하고 비무장지대의 환경과 동식물 등을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북한 어린이의 일상생활과 어린이도서관 통일 염원 퍼즐 맞추기, 통일놀이터 등 체험 활동을 통해 통일을 이룬 한국의 미래상도 그린다.

이산가족의 그림 모아 벽화 제작
1년간 공사 후 통일 체험·교육시설로 거듭나

1992년 실향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설립된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국내외 19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수도권의 대표적인 통일안보 체험시설이다. 1년간의 공사로 새 단장을 마친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8815㎡(약 2667평),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다. 1층에 기획전시실·상설전시실·염원실 등이 개설됐고, 2층에는 영상관과 상설전시실이 마련됐다. 3~4층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망대가 들어섰다.

통일부와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9월 13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이산가족의 날 및 오두산 통일전망대 재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산가족의 날은 매년 추석 이틀 전에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이 고향 땅을 바라보며 합동 제례를 지내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행사다.

1982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35회를 맞았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법률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산가족들의 기억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기념사업을 통해 이산가족의 아픔을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해나갈 방침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관계자는 “명실공히 국내외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통일 체험의 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

우정사업본부·지자체 '느린 우체통'

'1년 느린 편지'를 나에게 하겠어요

©뉴스1

우정사업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년 뒤 편지를 발송해주는 '느린 우체통'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편의점에서 느린 우체통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통기타 가수 강촌사람들의 노래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가 절로 흥얼거려지는 계절. 머릿속엔 노랗게 물든 은행잎 위로 오롯이 선 빨간 우체통의 모습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그러나 길거리의 우체통은 정작 자취를 감추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3개월간 한 통의 편지도 들어오지 않는 우체통을 철거한다.

그런데 산과 바다가 있는 곳엔 거꾸로 우체통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1년 후에나 편지를 배달해주는 '느린 우체통'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느린 우체통은 우체통 옆에 비치된 엽서에 내용을 적어 우체통 안에 넣으면 1년 뒤 엽서에 적힌 주소지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엽서와 우편료 등의 비용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함께 부담한다. 전국 관광명소와 중·고교, 전국 씨유(CU) 편의점 50여 곳에서 1년 느린 편지를 쓸 수 있다. 서비스가 운영되는 점포는 CU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느린 우체통을 모방한 것이다. 2009년 영종대교기념관에서 시작된 사업은 전국 관광명소 50곳으로 확산됐다. 인천 영종대교기념관에는 낙조를 바라보며 편지를 쓸 수 있는 '느림보 우체통'이 있다.

낙조 보며 편지 쓰고 즉석사진 엽서로 만들어
연인끼리, 1년 뒤 나에게 쓰는 편지 인기

강릉 경포해변에도 이와 비슷한 '추억의 느린 우체통'이 인기다. 우체통 서랍에는 오죽헌, 경포호, 선교장 등 강릉의 주요 명소 8곳의 그림엽서가 들어 있다. 서울의 대표 야경 명소인 북악산 팔각정의 느린 우체통은 연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이곳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해 엽서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순천 낙안읍성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통 모습을 복원한 '추억의 우체통'이 있다. 추억의 우체통은 다음 날 바로 편지를 배송하는 '빠른 우체통'과 원하는 날짜에 편지를 배달해주는 '느린 우체통' 두 가지가 있는데 느린 우체통의 인기가 훨씬 높다.

전주 한옥마을 안에 자리한 최명희문학관의 느린 우체통에는 '1년 뒤에 받는 나에게 쓰는 편지'라고 새겨져 있다. 방문객들은 현재의 자신을 향한 위로와 응원, 미래의 다짐을 담아 종이 위에 글자를 꾹꾹 눌러 적는다.

생각나는 대로 즉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상대가 메시지를 읽었는지까지 수시로 확인하는 현대인들이 느린 우체통을 이용하는 이유는 뭘까. 몇 년 전 연인과 함께 느린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는 이유리(30) 씨는 "느린 우체통의 편지를 기다리는 시간은 설렘이다"라고 표현했다.

"1년 뒤 지금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될 거란 생각에 현재의 감정에 더욱 집중해 편지를 쓰게 되더라고요. 휴대전화 메시지는 답장이 5분만 늦게 와도 짜증이 나는데 아예 1년 뒤에 편지가 올 거라 생각하니 기다리는 시간도 설레더군요. 기억에서 잊힐 때쯤 받아본 편지는 지금보다 풋풋하던 때를 추억할 수 있게 해 좋았어요."

올가을엔 추억과 여유를 배달하는 우체부가 되어보자. G

점심값은 내가 쏜다? 더치페이가 대세야, 대세!

ⓒ pixabay

청탁금지법 등으로 밥값을 각자 내는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얼마 전 게임회사로 이직한 김영권(32세·가명) 씨는 이전 직장에 비해 자유롭고 수평적인 직장 문화에 적응하는 중이다. 특히나 놀라웠던 건 식사비 계산 문화. 새로 입사한 후 팀원들과 함께 먹는 첫 점심 식사 자리였다. 회사 근처 일식집에서 8명이 먹은 밥값은 총 7만5000원이 나왔다. 팀장이 자연스레 계산대 앞으로 카드를 내밀었다. 으레 법인카드로 계산을 하거나 그가 한턱 내는 걸로 생각하던 찰나 들려온 소리. "각자 자기가 먹은 음식값만큼 입금해. 내 계좌는 다들 알지? 영권 씨는 첫날이니까 빼고." 김 씨는 구내식당에서 먹는 게 아니라면 팀장이나 가장 높은 직급의 선배가 계산하는 게 당연시되던 이전 직장과는 다른 분위기에 다소 당황했다. 하지만 이 회사 건물엔 구내식당이 없어 점심값 지출이 큰 데다, 매번 얻어먹는 것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했기에 다른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비싸진 점심값 탓에 '쏘는' 문화 사라져 계산대 앞에 줄지어 "각자 계산해주세요"

각자 계산하는 이른바 '더치페이(각자내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낮거나 조직 문화가 유연한 직장에서는 밥값 더치페이는 이미 보편화된 모습이다. 올해 초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도 '점심값 계산을 더치페이 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꼴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상사가 직접 내는 경우는 열에 한 명이 안 됐다(마이크로밀엠브레인). 점심시간 카드 결제 한 건당 액수도 지난해보다 줄었다. 중식 2.4%, 한식 3.7%, 양식 5%, 일식 6% 순으로 줄어든 비율이 컸다(BC카드 빅데이터 센터). 계산을 각자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트렌드연구소 박성희 연구원은 "불황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더치페이는 너무나 당연한 문화"라고 분석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저축(Stock)을 할 수 없는 플로(Flow) 세대다. 우리나라는 함께 식사를 하는 게 보편적 문화지만 얇아진 지갑 탓에 한 턱을 내는 게 부담스러워졌다. 혼자 식생활을 즐기는 '혼술족', '혼밥족'도 이런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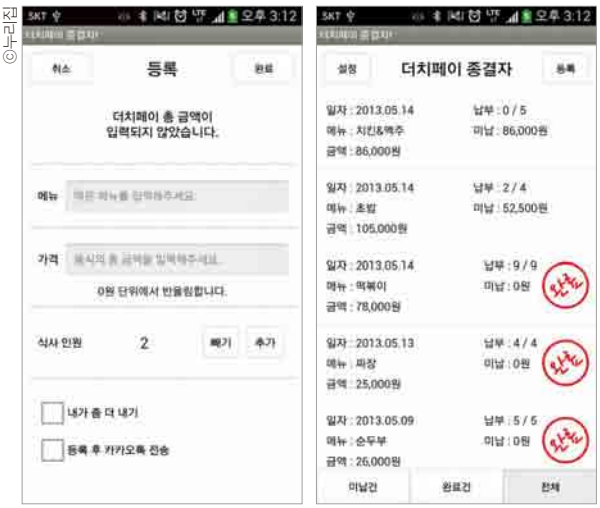
여기에 비싸진 점심값도 더치페이를 부추겼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점심값은 처음으로 6000원을 돌파(6566원)했다.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정승원 씨는 "점심 한 끼 식사 가격이 9000원 정도 하는데 서너 명이 함께 식사를 한 뒤 한 명이 이걸 다 결제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재미삼아 사다리타기나 제비뽑기로 계산할 사람을 정하는 게임도 요샌 자제하는 편이다"라고 털어놓았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회사가 있는 20대 직장인 이영은 씨는 "한 명이 부담하면 메뉴를 마음대로 고르기도 힘들다"면서 "우리 회사는 팀별로 미리 한 달 치 점심값을 걷어 디포짓(예치)해놓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머니가 가벼운 대학생들 사이에선 더욱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대학생 안지현(22) 씨는 "여럿이 만나는 자리에 현금을 안 가져오는 친구는 예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금을 걷어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안 씨는 이어 "선배가 후배에게 밥을 사주는 문화가 남아 있긴 하지만, 모두 수입이 없는 친구들 사이에서 더치페이를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더치페이는 이른바 한 명이 '쏘는' 것에 비해 계산이 복잡할 수 있지만, 이들은 다소 번거로운 방식에도 불편함이나 창피함을 느끼지 않는다. 현금 사용이 적은 젊은이들은 앞서 직장인 김 씨의 사례처럼 한 명이 계산한 뒤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각자의 카드로 자신

의 몫만 계산하기도 한다. 한 명이 여러 명의 카드를 걷어 종업원에게 내미는 경우도 있지만, 각자 먹은 음식값이 다를 땐 모두가 계산대 앞에 줄을 서는 장관도 펼쳐진다. 대학생 김민우(27) 씨는 "인원이 많을수록 더치페이를 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계산대 앞에 대여섯이 줄을 서 '각자 카드로 계산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창피하게 느껴졌지만 이젠 이마저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변화에 음식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계산 업무가 이전에 비해 두세 배 이상 많아지면서 계산만 하는 종업원을 고용하기도 한다. 일본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문 자판기를 들여놓는 곳도 있다. 계산 업무가 늘면 그만큼 실수할 확률도 커지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더치페이를 위한 스마트폰 앱도 인기를 끌고 있다. '더치페이 종결자'는 음식값 계산은 물론 누가 자기 몫을 안 냈는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중·장년층 인식도 변화
더치페이 계산·간편 송금 스마트폰 앱 인기

지난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중·장년층이나 영업과 접대가 일상화된 업계 종사자들에게까지 더치페이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법 적용 대상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3만 원 이하의 식사만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각자 내는 게 깔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 법 자체가 '더치페이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50대 공무원 정은태(가명) 씨는 아직은 어색하지만 긍정적인 반응이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자리에 공무원도 있고 하니 더치페이를 해보자며 농담 삼아 말했다. 쩨쩨하다며 본인이 내겠다는 친구도 있었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이렇게 한다 해서 해봤다. 더치페이가 세련되고 합리적인 문화라는 인식이 생긴 듯하다."

앞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첫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528명을 대상으로 더치페이 문화 확산 여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7%가 '확산될 것'이라고 답해 '우리 문화에서는 잘 안될 것'이라는 응답(35.9%)을 크게 앞섰다(리얼미터).

이처럼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더치페이를 도와주는 스마트폰 앱 등 새로운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더치페이 앱은 모임 인원, 차수와 식사금액을 입력하면 이를 n분의 1로 나누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미납자에게는 '더치페이 재요청하기'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은행권에서는 기존 모바일 앱에 더치페이 기능과 송금 서비스를 연계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미리 계좌번호만 입력해놓으면 암호 입력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 받는 사람은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문자메시지로 입금된 돈을 알 수 있다. 한 은행의 경우 "더치페이 앱의 하루 평균 가입자 수가 4000명 수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000명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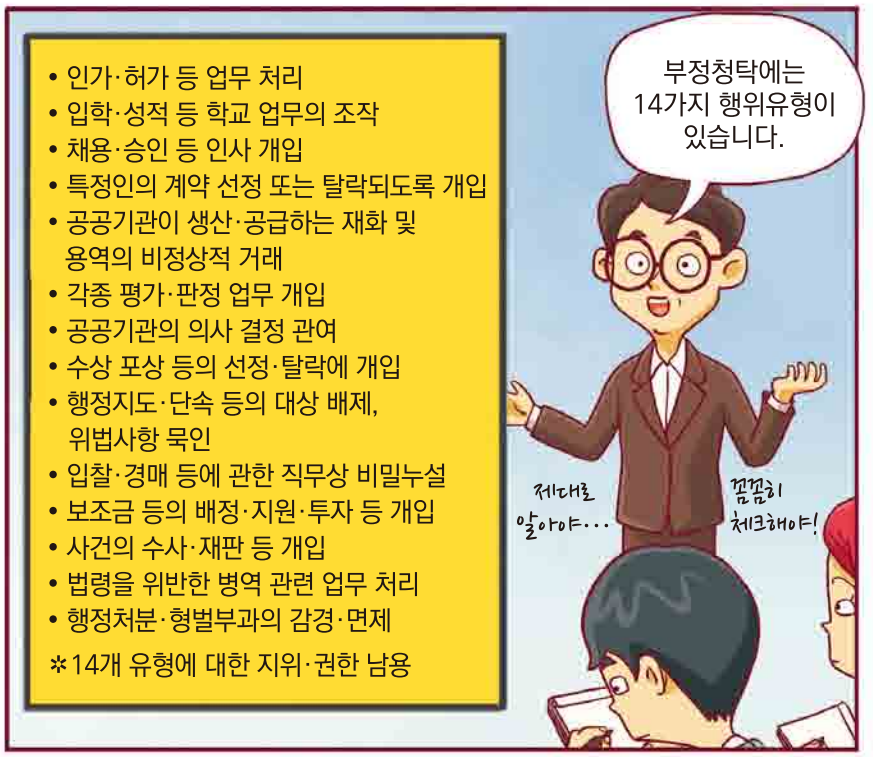
결제 전문 기업들은 식당에 설치하는 전자메뉴판에 더치페이 결제 기능을 탑재했다. 한 기업이 개발한 전자메뉴판은 주문부터 결제까지 앉은 자리에서 태블릿PC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기업은 여기에 더치페이 기능을 추가해 음식을 주문하면 한 사람당 밥값을 계산해주고 여러 명이 나눠 낼 수 있는 기능까지 담았다.

박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이미 20, 30년 전부터 더치페이가 일상화한 일본과 같은 모습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은 트렌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청탁금지법으로 더치페이가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에도 같은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변화가 있을 거다. 더치페이는 서로 부담 갖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좋은 문화다." G

나청렴 박사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글 변혜령 그림 김정혁



- 인가·허가 등 업무 처리
- 입학·성적 등 학교 업무의 조작
- 채용·승인 등 인사 개입
-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 관여
- 수상 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등 개입
-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14개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 직무 연관성이 없어도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 금품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만약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경우 신고하세요.

신고기관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절차

조사 감사 수사 ▶ 징계 처분, 과태료 부과, 공소 제기 등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유형	위반 행위	제재 수준
부정 청탁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을 한 이해 당사자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 청탁을 한 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형벌
금품 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자	과태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자	형벌

우리 생활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

- 공직자는 직무상 지위 권한을 이용한 특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에게 불필요한 금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 금품 수수는 소관기관에 신고합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프로스포츠 '클린 스포츠'로 거듭나야

©뉴시스

9월 2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박재영 사무총장을 비롯한 프로스포츠 단체 관계자들이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위원석 | 스포츠서울 체육1부장

● 지난 9월 29일 서울 신문로에 위치한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는 국내 프로스포츠 단체를 대표하는 실무 책임자들이 모두 모였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프로스포츠 7개 단체(야구, 축구, 남자 농구, 여자 농구, 배구, 남자 골프, 여자 골프) 사무총장들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불거지고 있는 프로스포츠 분야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향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승부 조작, 불법 도박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와 사전 예방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양적 성장을 위해 질주해왔던 한국 프로스포츠에 질적 전환과 도덕성 회복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앞으로 정립돼야 하는 국내 프로스포츠의 새로운 시기는, 양적으로는 성장을 거듭했지만 그 내부에서는 수익성 저하에 따른 자생력 결핍에 허덕이고 승리지상주의에 따른 도덕성 해이가 만연하는 두 가지 병폐에 대한 반작용으로 태동하고 있다. 프로스포츠의 자생력 확보와 클린스포츠 확립이라는 두 가지 화두는 미래의 국내 프로스포츠가 꼭 견지해야만 하는 지향점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앞서 말한 프로스포츠 단체들의 합동 기자회견이 열린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대책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내 한국프로스포츠부정방지위원회가 신설돼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 위원회 산하에는 특별상벌위원회가 가동되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승부 조작이나 불법 도박 등)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단체의 상벌위원회 이후 2심 성격으로 열린다. 제재 대상도 그동안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프로구단이나 개인(선수, 심판, 관계자)이 중점 처벌 대상이었지만 특별상벌위원회에서는 해당 프로스포츠 단체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부정행위 발생 시 구단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범죄 발생 시 해당 프로스포츠 단체까지 징계 대상
잘못된 부분 개선하겠다는 끈질긴 노력 필요

징계 강화 이외의 또 다른 접근은 예방이다. 프로스포츠협회 내 한국프로스포츠부정방지위원회는 앞으로 기존 단체별로 운영되던 신고센터 및 포상금 제도를 일원화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부정방지 예방에 가장 중요한 스포츠 윤리 교육도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프로스포츠 구성원(선수, 심판, 관계자)에게만 국한됐던 스포츠 윤리 교육을 유소년과 청소년 대상으로 늘리고 아마추어 선수들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와 학부모까지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징계'와 '예방'이라는 두 가지 대책을 내놓은 셈이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효과를 낸다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작금의 병폐 현상은 역사적인 뿌리가 꽤나 깊기 때문이다. 또 프로 선수나 관계자들의 인성이 아마추어 시절부터 길러진다는 점에서 단순히 프로스포츠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측면도 강하다. '클린스포츠'에 대한 지향점은 분명히 하되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당초 프로스포츠의 태동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나가겠다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 승리지상주의나 물신주의에서 비롯된 병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단 프로스포츠계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스포츠가 가진 본질적인 존립 의미를 생각한다면 프로스포츠계에서는 더 엄격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G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내년부터 화장품 미세 플라스틱도 금지

149개 치약 회수… 살균제 성분 극미량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 모든 치약 제조업체(68개소 3679개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모레퍼시픽, 부광약품㈜ 등 총 10개 업체의 149개 제품에서 논란이 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혼합물이 함유된 계면활성제가 검출됐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전부 회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나 치약, 화장품 등의 변질을 막기 위한 보존제로 사용된다.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러붙으면 호흡곤란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CMIT와 MIT가 피부나 구강 점막을 통해 흡수될 때는 유해성이 거의 없고, 이번 논란으로 적발된 치약에서 발견된 양은 0.0044ppm 정도로 극미해 삼켜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치약 등에 해당 성분이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15ppm까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치약에는 넣으면 안 되는 미허가 물질이기 때문에 10개 업체에 회수조치를 내렸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불안할 땐 샴푸·물티슈 등 CMIT·MIT 농도기준 확인
세안제 속 알갱이 전면 퇴출, 천연 성분도 맹신은 금물

CMIT와 MIT는 화학제품에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해성분의 유무보다 정부가 정해놓은 농도기준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샴푸, 린스, 보디워시, 세안제, 면도크림, 구강청결제 등 사용 후 물로 씻어내는 화장품은 CMIT와 MIT를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세제의 경우 채소와 과일을 씻는 1종 세척제에는 사용할 수 없고 2종(조리기구용), 3종(식품제조장치용) 세척제에만 허용된다. 섬유유연제는 100ppm이 기준이다. 현재 기준이 없는 방향제, 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질을 퇴출시키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취제는 강한 향으로 악취를 일시적으로 덮는 것이기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부득이한 경우 옷을 벗어서 살짝 뿌리고 환기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CMIT와 MIT가 검출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올바른 물티슈 사용법을 제시했다. 물티슈는 개봉 후 1~3개월 내에 최대한 빨리 사용하고 사용한 물티슈는 즉시 버려야 한다. 수분으로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2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눈 주위 등 민감하거나 상처가 난 피부에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용 전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이라도 개인에 따라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목에 미리 테스트를 하면 좋다. 원료 및 성분에 관한 정보는 '화장품 성분사전'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 5mm 이하의 플라스틱 알갱이로 주로 각질 제거를 위한 세안제, 스크럽제 같은 화장품에 사용된다. 최근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제품 라벨에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폴리에틸렌' 등의 성분이 있는지 보면 된다.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가 커지며 천연 성분이 주목받고 있지만 맹신은 금물이다. 해조류 추출물, 코코넛 오일 등의 보습 성분과 세테아릴 알코올, 아세틸렌 라놀린 알코올 등 유화제 성분은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천연 향료라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 전 성분표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G

CMIT·MIT 사용 제품 관련 규정

제품	규정
• 치약 • 구강청결제	• 사용 불가 • 15ppm 이내 사용 가능
• 화장품, 샴푸, 린스, 보디워시, 세안제, 면도크림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15ppm 이내 사용 가능
• 조리기구용 세제(2종), 식품 제조장치용 세제(3종) • 채소·과일용(1종)	• 사용 가능(세척제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굴 것 명시) • 사용 불가
• 섬유유연제	• 100ppm 이내 사용 가능
•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 관련 규제 없어 전면 사용 금지 고시 개정 중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보건복지부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새벽잠 깨우는 수탉 생체시계가 작동하네

김창엽
자유기고가

● “시골에서 살면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 닭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지 새벽에 잠에서 깨지 않을 수 없거든요.”

서울에서 살다가 수년 전 세종시 인근의 농촌으로 내려와 집을 짓고 사는 최모 씨는 닭 울음소리가 시쳇말로 장난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유정란이 몸에 좋을 거 같아 닭 예닐곱 마리를 텃밭 한쪽에서 키우는데, 때로는 신경이 거슬릴 정도로 닭들이 크게 울어댄다”고 말했다.

도시에서는 닭 울음을 듣기 어려운 까닭에 그 소음 정도를 잘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휴가철 시골 등지에서 밤을 난 경험이 있다면, 닭 울음이 웬만한 도시 소음을 능가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거나 소음에 민감한 편이라면 스트레스가 상당할 만큼 소리가 크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수년 전 시끄러운 닭 울음 때문에 닭 주인이 법정에 선 일도 있었다.

닭은 가축치고는 덩치가 크지 않아 도시에서도 마당이 있는 집에서는 키우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실제 도시에서 닭을 키우는 사례를 찾기 힘든 건, 동네 전체의 새벽을 소란하게 만드는 닭의 큰 울음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새벽 시간 특히 도드라지는 닭 울음은 사실상 다스릴 만한 방도가 없다. 못 울게 하거나 울음소리를 작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는 것이다. 일본 나고야대학의 실험에 따르면 닭 울음은 어찌할 수 없는 닭의 ‘천성’이다. 단적인 예로, 실험 결과 새벽 동틀 녘에 닭이 특히 울어대는 점에 착안해 24시간 일절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 키웠는데도 닭은 여전히 새벽 시간이 되면 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닭 울음 중에서 특히 신경에 거슬리는 건 수탉의 소리다. 암탉도 울긴 하지만 특히 큰 소리로 울어대는 건 수탉, 그중에서도 무리의 우두머리 격인 수탉이다. 목이 터져라 우는 수탉의 울음소리는 가까이서 접할 때 소음 정도가 90데시벨 안팎이다. 지하철에서 기차가 역에 진입할 때 느껴지는 소음과 정도가 엇비슷하다. 이에 비해 암탉의 울음은 60데시벨, 사람들이 제법 큰 소리로 대화할 때 정도이니 수탉과는 차이가 꽤 크다.

그렇다면 수탉은 왜 새벽녘에 특히 큰 소리로 울어댈까? 학자들의 추론은 분분하다. 유력한 추정 가운데 하나는 수탉의 뇌 속에 생체시계가 내재돼 있고, 그 생체시계가 새벽 동틀 녘에 작동한다는 것이다. 수탉이 우는 이유로는 무리 내에서 자신이 우두머리라는 점을 확인시킴과 동시에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한 경고 등이 꼽힌다. 예컨대 닭 무리 근처에 다른 동물들이 다가가거나 자동차 등이 접근하면 우는 게 그런 연유에서라는 것이다.

©Shutterstock

수탉의 울음소리는 가까이서 접할 때 소음 정도가 90데시벨 안팎이다. 지하철에서 기차가 역에 진입할 때 느껴지는 소음과 정도가 엇비슷하다.

닭 울음을 주도하는 우두머리 수탉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도도한 면모를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먹이가 있는 곳으로 암컷을 유도하는 등 헌신적으로 ‘조직’을 돌보기도 한다. 수탉의 울음으로는 흔히 ‘꼬끼오’를 떠올리지만 실제 수탉이 낼 수 있는 소리는 30여 종에 이른다. 다양한 수탉의 울음소리는 그만큼 무리 내에서 수탉의 역할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른 새벽 단잠을 깨우는 수탉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닭들의 서로 다른 울음소리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는 등 그 소리를 즐기려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G

‘강한 남자’ 혹은 ‘개저씨’ 대한민국 남자 해부

윤융근
위클리 공감 기자

● “개 좋아하는 아저씨가 아닌, 개 같은 아저씨! ‘남자이자 나이 많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하지만 한국에서는 효용성이 무척이나 큰 두 가지 변수만을 믿고 무례한 짓을 무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개저씨’다. 이런 용어의 사용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짓눌린 자들의 미세한 저항이다. 가히 혁명적이지 않은가?”

사회학을 전공한 저자는 친구들이 ‘마초’라고 부르던 남자였다. 하지만 아내의 출산을 계기로 자의 반 타의 반(?) 페미니스트가 됐다. 블로그에 올린 ‘분만실 40시간 체험, 군대보다 더 무서워’라는 글이 계기가 됐다. 평생 먹을 악플과 욕을 한 번에 다 먹었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남자 세계를 진지하게 혹은 유쾌하게 해부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강하지만 슬픈 오늘날 한국 남자를 이해하는 코드로 군대와 학교 교육,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등을 꼽는다. 권위주의와 경쟁주의 문화에 절어 있는 학교, 폭력과 명령, 복종만이 절대 진리인 군대를 거치면서 남자는 점점 남성(사회적 성)으로 변해간다고 주장한다.

한번 살펴보자. 이 땅에서 평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보통 남자도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침을 튀긴다. 목소리 크기는 달라도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자기가 현역 시절 가장 빡센 부대에서 가장 많이 고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는 이치는 군대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남자는 모름지기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고 말한다. 모병제 논의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자들은 군대를 증오하는 만큼 옹호한다. 저자는 “국가가 군대를, 증오의 원인을 해결해주지 않으니 자기 경험을 배신하는 일종의 유체 이탈 화법으로 심리를 치유한다”고 이야기한다.

“‘남자가, 남자답게!’ 소리를 듣고 성장하는 한국 남자들은 폭력을 참아가면서, 수치심을 느끼면서 점점 남성이 되어간다. 한국에서 말하는 ‘진짜 남자’는 폭력에 둔감하다. 폭력을 당해도 당하는 줄 모르고, 저질러도 그게 폭력이 아니라 한다. 남성들 개인이 성별에 따른 정체성을 내면화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하는 학교가 이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
오찬호 지음 | 동양북스 | 312쪽 | 1만4500원

지금도 가정에서는 물론 교실 안팎에서 남자는 ‘남자다움’을, 여자는 ‘여자다움’을 강요받는다. 저자의 경험은 생생하다. 고등학교 1학년 개학 첫날 1분 지각했다. 담임교사는 매를 들었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참았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저 자식, 생긴 것하고는 다르게 남자답더라’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후 더 심한 폭력에 고통스러웠지만 고통을 표현할 수 없었다. 왜? 나는 진짜 남자니까.

저자는 “이렇게 성장한 남성들은 소통과 공감 능력 상실로 이어지기 쉽다”며 “때로는 약자를 공감하는 남성들의 집단 세력화와 결혼과 출산율의 저하까지 부른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가 상식처럼 믿고 있는 성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사회문화적인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왜 진상남, 성희롱남이라는 단어는 없으면서 된장녀, 개똥녀, 김치녀, 맘충 등등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는 주기적으로 유행하는지 그 이면을 다양한 시선으로 이야기한다. 한국 남자들의 심리를 해부하는 솜씨가 탁월하다. C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들

원재훈
시인

● 며칠 전 단골 구멍가게가 폐업을 했다. 밤 9시경 불 꺼진 가게 앞에서 갑자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멍하니 있었다. 거 참, 황당한 일이었다. 우리들에게 대가의 작품처럼 분명히 거기에 있을 거라고 믿음을 주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단골 커피집이나 미장원 같은 장소들,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서부터 로마의 유적지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진다.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일이지만 사람의 경우는 좀 다르다.

어떤 예고도 없이 징후도 없이 문득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가을날 낙엽들처럼 내 주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다. 청년 시절에는 무성한 나뭇잎처럼 참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았다. 시인들을 비롯해 다정다감한 친구들도 많았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질병이나 사고로 내 곁에서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세월이 지나니 그 사람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다. 더 슬픈 것은 사라진 것들에 대한 감정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나를 힘겹게 하는 날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글쓰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말은 하는 순간에 사라지고, 글은 쓰는 순간에 남는다.

문학은 이러한 사라짐에 대한 되살림인가 싶기도 하다. 예를 들어 최일남 선생의 소설이 그렇다. 선생의 소설은 우리말에 대한 곰삭은 문장들이 일품이지만, 다시 읽어보니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마치 불에 덴 것처럼 확연하다. 선생이 기자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로 추정되는, 소설 속 1970년대 서울 무교동의 풍경은 내 젊은 시절 1990년대의 인사동과 겹쳐지면서 아주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한 사람과 이야기들을 되살려내는 연금술과 같은 매력이 있었다.

한동안 서양의 고전소설들을 집중적으로 읽다가 우리 소설을 읽으니 마치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 먹는 저녁상처럼 포만감이 넘치고 정말 행복했다. 미당의 작품을 비롯한 우리의 시는 또 어떠한가! 글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멀리 두고 있을 뿐이다. 부질없는 약속보다 좋은 시 한편은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있어서 가을이 깊어가도 그리 외롭지 않다. 책 한 권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대신하기도 한다. 가을엔 꽃이 지고 나뭇잎이 떨어지니 새삼스럽게 오래전에 내 곁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났다. 그중에 직장 선배(이제는 고인이 된)가 나에게 선물해준 책 강희안(1417~1464)의 〈양화소록〉이 있다. 꽃 키우는 별난 선비였던 형의 책에 아우인 강희맹(1424~1483)이 이런 글을 적었다.

"공(강희안)이 세상을 떠난 지 아홉 해, 계사년 봄에 그가 살던 옛집을 찾았더니 전원은 온통 묵어버렸고, 꽃나무도 모두 부러지고 없어졌다. 한참 동안 배회하며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동안에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누를 길이 없었다."

아우가 형님의 집을 찾아간 때는 봄이다.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계절에 꽃과 나무를 사랑한 옛 선비의 옛집은 퇴락했다. 사람이 없는 집은 이토록 외로운 것이다. 기억도 사람이 사는 집과 같다. 강희안의 옛집도 불과 9년 만에 사라지고 없어졌다.

이 책을 받은 지가 20년이 지났다. 우리 풀과 나무를 사랑하라며 그 선배가 책을 전해주면서 지은 미소가 선명하게 떠오른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중이다. 적어도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 감정을 외면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적어놓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다면 아무것도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과 묘비명을 만드는 것이다.

갑자기 문을 닫은 구멍가게 앞에서 길 건너 편의점으로 가는 동안, 나는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조금 천천히 걸었다. 뭐, 서두를 것이 없다. 그냥 천천히 가라.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 이렇게 충고하는 것 같았다. 그들도 자신의 행방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니…. G

unikorea.go.kr/ucwf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일상에서 통일을 만나다

통일 문화 주간 2016

2016 UNIKOREA CULTURE WEEK

10.21 Fri – **25** Tue

서울, 경기 일원

통일부

숨은 대한민국 찾기

2016 가을여행주간 '대한민국의 숨겨진 가을 속으로'

10.24-11.6

함께 떠나요, 단 14일간만 열리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가을 속으로

다양한 여행할인 혜택과 가을 여행의 즐거움이 가득한 여행주간! 지금 바로 [여행주간]을 검색해보세요(http://fall.visitkorea.or.kr)

여행주간
10.24-11.6

문화융성 | Ksmile | 대한민국 구석구석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